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이준규 편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정책자료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이준규 편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표 1. 세계경제 전망(2005~2006년)

(단위: %)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세계경제성장률	3.5	3.4	4.3	4.3	3.2	3.2
미국	3.7	3.4	3.5	3.3	3.5	3.5
일본	2.4	1.9	2.0	2.0	2.3	1.8
EU 지역	1.4	1.8	1.2	1.8	1.1	1.4

자료: Global Insight(2005. 11); IMF(2005. 9),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05. 11), 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 2006년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는¹⁾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 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경상 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1) 2005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7,700 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5년 경상 적자는 GDP 대비 6.5%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고유가 지속 위험

-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 주요국의 경제 전망

가. 미국

■ 2005년 하반기 동향

- 미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03년 2/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3~4.3%를 기록하여 최근 2년간 고유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초과 달성함.

■ 2006년 미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Δ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금리 상승 △주택시장 버블 붕괴우려 △쌍둥이 적자의 지속 등임.

■ 2006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미국경제는 2006년 평균 3.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나. 중국

■ 중국은 2005년 1/4분기 9.4%, 2/4분기 9.5%, 3/4분기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 이래 9% 이상의 고도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는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 △수출과 투자 의존형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임.

■ 중국은 고도성장 위주의 정부정책 기조, 수출증가세와 무역 흑자의 발생 지속 등의 요인에 의해 2005년 9.3%, 2006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향후 4년간 성장률 및 위안화 전망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 GDP 성장률, %	9.3	8.0	7.5	7.0
위안화 · 달러 환율	8.1	7.9	7.6	7.6

자료: EIU(2005. 11)

- 위안화 환율은 보다 실질적인 추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5% 내외)으로 예상됨.

다. 일본

- 향후 일본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 주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 2005년 일본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는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라. 유럽

- 2005년 상반기에 전기대비 0.3~0.4% 성장했던 EU 경제는 수출확대에 힘입어 2005년 3/4분기에 0.6% 성장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 2006년 주요 이슈는 △고유가 영향 △금리인상 가능성 △건축재정 압박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경제 개혁정책 불확실성 △이민자 이슈 △EU 헌법 부결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 등임.
- 2006년 EU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정치·경제적 불안요소는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경제는 2005년에 1.4~1.5% 성장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위축되고 2006년에는 다시 1.9~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국제환율 전망

가. 2005~06년 국제금융시장의 이슈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금리정책 방향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차이 확대로 각국의 정책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여건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상반기에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급격한 조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법은 환율조정, 무역 흑자국 총수요 증가, 미국의 가계 및 정부의 저축증가 노력 등이지만 세가지 방법이 다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나. 2005~06년 환율 전망

표 3. 주요국 환율 전망

		05/12/2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로화 (달러/유로)	WEFA-DRI	1,1869	1,23	1,26	-	-
	투자은행		1,1907	1,2375	1,2680	1,2736
엔화 (엔/달러)	WEFA-DRI	116.26	112,91	109,74	-	-
	투자은행		116,36	113,17	111,40	106,21
원화 (원/달러)	KIEP	1013,60	1014,33		1,000,32	

주: 투자은행은 14개 국제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이고, 2005년 12월 23일 종가 기준 명목 환율 제시.
 자료: WEFA_DRI(2005. 11), Online Database; 국제금융센터, 2005년 12월 6일 보도자료.

■ 달러화는 금리 인상 지속으로 2005년 말까지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2006년 상반기 이후 ECB와 BOJ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요국간 금리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4. 2006년 유가 전망

-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수준은 △2006년 미국경기 △중국의 연료세 도입 추진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정세변화 △허리케인 피해영향 지속 여부 등 5대 변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임.

표 4.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시나리오	내용	두바이 유가	WTI 유가
고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3% 이상 •이란 핵문제와 석유 연계 •허리케인 피해 발생과 비축유 방출 	62±5달러	75±5달러
기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0~3.2% •중동정세 불안 현수준 유지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 미발생 	50±3달러	60±3달러
저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2.5~3.0% •중국 연료세 도입 •산유국의 테러 및 파업 미발생 	43±2달러	50±2달러

5. 2006년 주요 통상환경

가.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간단계”가 목표인 제 6차 WTO 각료회의(2005년 12월 13~18일)에서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등 핵심의제가 합의되면서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음.
- WTO 회원국은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7월 말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협상 여하에 따라 2006년 말 또는 2007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 전체가 타결될 수 있고 회원국별 이행 검증과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 중으로 DDA 협상 결과가 발효될 수 있을 것임.

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 2005년에는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함.
 -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총 18건의 FTA가 2005년 중에 추가됨.
-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당분간 FTA 체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ASEAN+3 동향 및 전망

-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보다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가가 향후 일정 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각화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대응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고, 역내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라. 동북아 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에너지 개발 관련 협력사업의 진전이 기대됨.
- 동북아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을 단기적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역내 에너지, 철도, 환경 등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협의기구로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차 례

국문요약	5
제1장 세계경제 성장 전망	21
1. 세계경제 동향	21
2. 2006년 세계경제 전망	23
3. 2006년 세계경제 주요 위협요인	25
제2장 주요국 경제 전망	29
1. 미국	29
2. 중국	35
3. 일본	48
4. 유럽	54
5. 중남미	62
6. 러시아	69
7. 인도	77
8. 동남아	84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전망	95

1.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 이슈	95
2. 2005/2006년 환율 전망	99
3.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103
제4장 유가 전망	105
1. 최근 유가 동향	105
2. 2005년 국제유가 급등 원인	106
3.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107
4. 2006년 유가 전망	113
제5장 무역 및 투자 동향과 전망	117
1. 수출입 동향과 전망	117
2. 외국인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123
제6장 2006년 주요 통상환경	127
1.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127
2.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133
3. ASEAN+3 동향 및 전망	138
4. 동북아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143
Executive Summary	147

표 차례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2003~2005년	21
표 1-2. 세계경제 전망: 2006~2007년	24
표 2-1. 미국경제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30
표 2-2. 미국 경제성장 전망에 중요한 요인	33
표 2-3. 2003~2005년 3/4분기 주요경제지표	36
표 2-4. 중국의 무역수지 현황	40
표 2-5. 최근 중국의 주요 경기진정책	41
표 2-6. 중국의 주요통화에 대한 환율(2005. 7. 21~11. 15)	45
표 2-7.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전망	47
표 2-8.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48
표 2-9. 주요기관의 일본 GDP 성장률 예측	52
표 2-10. EU 및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54
표 2-11. EU-25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55
표 2-12. 예측기관별 EU 및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61
표 2-13. 2006년 중남미 각국의 주요 선거일정	65
표 2-14. 중남미 국별 경제전망	68
표 2-15. 러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70
표 2-16. 2006년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 시뮬레이션의 내생변수	75
표 2-17. 2006년 러시아 사회발전 전망 시뮬레이션 결과(시나리오 II)	75

표 2-18. 인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79
표 2-19. 인도의 향후 경제전망	82
표 2-20. 인도네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0
표 2-21.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0
표 2-22. 필리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1
표 2-23.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1
표 2-24.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2
표 2-25.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93
표 2-26. 그 외 동남아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 추이 및 전망(2003~06) ..	94
표 3-1. 주요국 환율 전망	103
표 4-1. 2005년 국제유가의 변동	106
표 4-2. 2005년 주요 요인별 국제유가(두바이 기준) 영향	107
표 4-3. 주요국의 국내 유류가격(2004)	110
표 4-4. 세계 석유수급 전망	113
표 4-5.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114
표 4-6. 국제기관 유가 전망	115
표 5-1. 2004~2005년 9월 현재 수출 동향 비교	117
표 5-2. 2005년 1~9월 품목별 수출 동향	118
표 5-3. 2005년 1~9월 국가·대륙·경제권별 수출 동향	118
표 5-4. 2004~2005년 9월 현재 수입 동향 비교	119
표 5-5. 2005년 1~9월 품목별 수입 동향	119
표 5-6. 2005년 1~9월 국가·대륙·경제권별 수입 동향	119
표 5-7.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2003)	121
표 5-8. 2005년 9월 현재 상위 5대 수출품목 현황	122
표 5-9. 2005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추이	122
표 5-10.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23
표 6-1. 지금까지의 논의단계와 향후 전망	132

표 6-2. 2005년 주요국별 FTA 추진 현황	135
표 6-3.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교역비중(2004)	138
표 6-4. ASEAN+3 및 주요 지역경제통합체의 역내 무역의존도 비교 ...	139

그림 차례

그림 2-1.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1970/71~2004/05)	78
그림 2-2. 주요 4개국의 GDP 성장 전망	83
그림 2-3. 동남아 주요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2003~06)	84
그림 3-1. 주요국 환율 추이	100
그림 4-1. 국제유가 동향(2004~05)	105
그림 4-2. 미국 성장률과 석유소비증가율	108
그림 4-3. 미국 성장률과 국제유가상승률	108
그림 4-4. 중국 성장률과 석유소비 증가	110
그림 4-5. 주요국 정제설비 가동률 현황	114
그림 6-1. 세계 FTA의 체결 현황(발효중인 RTA 기준)	133
그림 6-2. ASEAN+3 역내 투자의 주요 흐름(2003)	140

제1장 세계경제 성장 전망

1. 세계경제 동향

□ 세계경제 성장 모멘텀 지속

- 세계경제는 2005년 3분기 고유가의 파고를 헤치고 많은 경제전문가를 놀라게 하고 있음. 세계경제 GDP 성장률은 향후 최소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최근에는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보다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이슈가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하반기 성장세는 상반기에 비해 다소 하락한 양태를 지속하고 있고, 이러한 하락의 양태는 2005년 3분기보다는 4분기에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나, 당초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표 1-1. 세계경제 성장률 추이: 2003~2005년

(단위: %)

	2003	2004	2005(추정치)
세계경제 성장률	2.6	4.0	3.4
미국	2.7	4.2	3.6
일본	1.4	2.6	2.4
EU지역	0.8	1.8	1.4

자료: *Global Insight*, 2005. 11. 15.

□ 미국 가계소비에 지나치게 의존

- 세계경제가 미국 가계소비에 지나치게 의존(overdependence)하고 있어 (미국의 개인저축률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음), 금리인상으로 미국소비자의 소비여력이 약화되는 경우 현재의 세계경제 호황이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세계경제 유연성 증가

- 2005년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대해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유연성을 바탕으로 성장의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세계경제 성장세의 지속은 전통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에서 다소 벗어난 비정상적인 성장세임. 9. 11 이후 4년 가까이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세계경제 전망에 대한 긍정적 판단은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월마의 영향에 대한 세계금융시장의 조용한 반응으로도 알 수 있음. 카트리나와 리타는 정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걸프만에 큰 피해를 주었고, 월마는 남플로리다에 타격을 주었음. 허리케인이 세계경제에 끼친 영향은 예상과는 달리 소규모였고 일시적인 것으로 판명되었음.
-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가 미국의 GDP를 0.5% 정도 2005년 하반기에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6년에는 2005년 발생한 허리케인의 부정적 영향은 사라질 것임. 정부의 복구지출과 재건축이 허리케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킬 것이며, 이러한 태풍피해복구로 인한 경제성장 증가의 효과는 2006년 상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

□ 중장기 인플레이션 압력 우려 부상

-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고유가의 위협은 4분기를 거치면서 유가하락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였음. 8월 말 허리케인으로 인해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하였던 유가는 10% 이상 하락한 6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음. 세계경제가 고유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면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2005년 사분기와 2006년 세계경제는 고유가가 근원물가지수(core inflation)에 미칠 잠재적이면서 간접적인 영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시점임.
- 2004년 이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세에도 불구하고 근원물가지수 상승은 잘 억제되어왔으나, 장기간 지속되는 고유가로 인해 주요 선진국의 근원물가지수 상승에 대한 우려가 2006년에는 팽배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생산갭의 축소와 높은 일차산품 및 중간재 가격의 조합은 인플레이션압력 상승의 충분조건이고, 현재 생산체인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

격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양상이 일부 산업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 글로벌 생산조건과 인플레이션 압력과의 관계

- 생산체인을 따라 가격상승의 패턴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의 제조업과 농업부문에서 상당한 초과생산능력이 잔존하고 있고,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소비재에 있어서 더욱 경쟁이 치열해 기업의 가격결정력을 제약하고 있음.
- 세계화는 중국과 인도의 노동력을 세계노동인력(global labor force)에 포함시켜 노동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이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을 제약하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비용절감 노력을 경주하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채찍질을 하고 있는 요인임.
- 또 하나의 인플레이션압력 억제요인은 주요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 의지 천명과 신속한 대응임. 각국 중앙은행들은 중장기적인 인플레이션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언제라도 금리상승을 통한 정책대응을 하겠다는 명확한 정책의지 표명을 하고 있음. 특히 2005년 11월 말 현재 미국의 FRB는 2004년 6월 이후 12차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였고, 2005년 12월, 2006년 1월, 3월 모두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요 선진국 정책당국의 명확한 의지표명과 신속한 정책 대응이 시장에 투명한 신호를 보내 인플레이션압력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전망 하이라이트

- 세계경제 성장률은 2005년 3.4%로 2004년보다 하락, 2006년은 3.2%~3.4%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

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2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예상되고, 금리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됨. 2005년 3분기에 보여준 미국경제의 건실한 성장 모멘텀이 2005년 말과 2006년 전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태풍으로 인한 미국경제 성장저하 효과는 2005년 0.2% 정도에 그친 것으로 추정되고, 세계경제에는 0.1% 정도 마이너스 효과를 준 것으로 판단돼, 2005년 하반기의 이러한 부정적 효과들이 2006년의 성장세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표 1-2. 세계경제 전망: 2006-2007년

(단위: %)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2006	2007	2006	2007	2006	2007
세계경제성장률	3.4	3.2	4.3	N.A.	3.2	3.3
미국	3.4	3.1	3.3	N.A.	3.5	3.6
일본	1.9	1.6	2.0	N.A.	1.8	1.7
EU지역	1.8	1.7	1.8	N.A.	1.4	2.0

자료: Global Insight, 2005. 1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05. 9. World Bank, *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11.

□ 중장기적 위험요인과 주요 선진국 전망

- 세계경제가 당면한 위험요인(immediate risk factor)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중장기적 위험요인은 잔존하고 있고, 2006년은 이러한 중장기적 위험요인이 단기적 위험요인과 함께 잔존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은 구조적인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 이슈가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고, 미국 금리상승으로 미국 소비와 투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유럽과 일본의 성장세가 지지

부진한 경우 2006년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성장의 소프트패치 우려가 급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장기 추세선(3% 성장)을 능가하는 현재의 세계경제 성장세 지속이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이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세계경제 성장엔진을 견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 현재 세계경제 성장의 구조적인 문제는 미국과 일부 아시아 국가 이외에 다이나믹한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할 국가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음. 특히 유럽(2004년 1.7% 성장)과 일본(2004년 2.6%)²⁾의 성장세가 미국이나 여타 아시아 개도국에 비해 저조하고, 2005년 하반기에 이들 지역의 수출과 내수가 다소 회복되는 조짐이 있기는 하나, 2006년 세계경제 성장에 있어서 순기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향후 2~3년 이상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1.6% 이상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유럽도 향후 2~3년 이상 지속적으로 1.8% 이상 성장세 달성이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 유의해야 함. 따라서 미국경제의 성장세나 일본을 제외한 기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이 소프트패치로 돌아서거나 주춤할 경우 일본과 유럽경제가 이들을 대체해 세계경제 성장엔진 역할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결론적으로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을 전제로 할 때 세계경제 중장기적 전망은 최근 2~3년간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Down-sided Risk가 잔존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3. 2006년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Avian Influenza) 위험

- 2005년 11월부터 철새이동철과 대서양의 허리케인 시즌과 맞물려 2006년 상반기 초까지 조류독감의 확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World

2) World Bank(2005. 11), *Global Economic Prospects*.

Bank의 발표³⁾에 의하면 현재까지 조류독감에 대처하기 위한 비용은 세계 GDP의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아시아 일부지역에서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인간전염도 확산되는 경우 직접 및 간접 비용을⁴⁾ 포함해 8,000억 달러⁵⁾ 이상의 비용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였고, 전세계에 주는 단기충격은 SARS보다 더 크고 장기에 걸칠 것으로 경고하였음에 유의해야 함.
-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는 선진국보다는 의료보건의체계가 빈약한 개발도상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이고,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됨.

□ 세계 주택시장 경착륙 위험

- 2006년에는 정책금리인상으로 인한 모기지금리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우려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선진국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주택시장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주택가격이 1997~2005년 동안 50%~100% 상승한 국가들은 이탈리아, 미국,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중국이고, 100% 이상 상승한 국가들은 호주,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임.
- 영국과 호주는 2005년에 이미 주택가격 하향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고, 미국 시장도 북동부지역, 아리조나주, 캘리포니아일부 지역에서 주택건설 및 거래시장 조정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영국 중앙은행은 2003년 하반기부터 주택가격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

3) World Bank, WHO 제네바 회의(2005. 11. 7)

4) 1999년 미국의 연구에 의하면 10만-20만 명 사망, 1000억-2000억 달러의 손실을 추정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경우 보건의료체제의 미비로 경제적 손실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5) World Bank(2005. 11. 7): 2003년 800명의 생명을 앗아간 SARS가 동아시아 지역 GDP의 2%를 감소시킨 것을 단순 비교해 전세계 GDP 역시 비슷하게 2% 감소한다면 그 규모는 80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함. 이러한 금리인상정책 결과 주택가격은 하락하였지만, 소비위축으로 인해 2004년 3.2%이던 경제성장률이 2005년 1.8%로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비관론자들은 향후 2~3년내로 영국 주택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어놓고 있음.

- 미국 Census Bureau에 의하면 주택건설허가, 신규주택 건설이 2005년 10월에만 각각 전년동월대비 1.2%, 2.3% 감소하였고, 10월 주택 판매 계약수가⁶⁾ 전년동월대비 8% 감소하였음.
-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은 2006년 금리인상에 따라 1분기부터 점차 주택가격조정 양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미국의 주택가격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주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국주택시장 경착륙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⁷⁾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 2004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6,176억 달러, 2005년 9월까지 누계 무역적자 규모가 이미 5,298억 달러에 달하고 있어, 2005년 경상적자 규모가 GDP 대비 6.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2006년 무역적자 규모만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에도 경상적자 규모가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의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되는 데 한계가 있음.
- 2006년은 미국의 경상적자 이슈가 재정적자 (2006년 3,410억 달러 전망)⁸⁾와 함께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6) Real Trends Consulting Firm, 2005. 10.

7) 벤 버냉키 FRB 총재 내정자 주장, 2005. 11. 15.

8) *Global Insight*, 2005. 11.

□ 고유가 지속 위험

-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의 주원인은 OPEC의 잉여생산능력 부족, 미국경제의 성장세 지속, 중국·인도 등 신흥 개도국의 에너지수요 폭증 등 타이트한 수급요인에 1차적 원인이 있고, 정제시설 부족, 허리케인으로 인한 정유시설 피해, 중동정세 불안 등도 고유가를 부추긴 주요 원인이었음.
- 상기 요인들이 2006년에도 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2006년 국제 유가를 움직일 주요 변수는 (i) 미국경제성장세 여부(미국 경제성장률과 국제유가의 높은 상관관계), (ii)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iii) 이란 강경파 대통령 아흐마디 네자드의 취임으로 인한 핵개발 추진과 서방세계와의 갈등, (iv) 이라크 상황이 내전으로 확대되는 경우. (v)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임.

□ 세계적 동반 금리상승 위험

- 미국의 FRB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12차례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아닌 점진적인 형태의 금리정책을 펴왔음.
-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가장 주목하는 거시 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함께 유럽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따라서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상승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 지역간 새로운 갈등관계 발생, 테러위협,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재해도 세계경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테러방어 및 자연 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테러 및 자연재해 발생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제 2 장 주요국 경제 전망

1. 미국

가. 2005년 동향

- 미국의 2005년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최종치)은 2분기보다 0.8% 포인트 높은 4.1%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됨(12월 21일, 美 상무부 발표).
 - 이로써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03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 3%를 상회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세를 유지하였음.
 - 美 상무부의 발표 이전 월가를 중심으로 경제전문가들의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의 컨센서스는 3.5%였음.

- 2005년 3분기 미국의 실질 GDP가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은 기록한 데는 소비지출의 팽창과 함께 정부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개인소비 지출은 비약적인 내구재지출 증가(10.8%)에 힘입어 지난해 4분기 이후 최고인 3.9%의 증가율을 기록함으로써 실질 GDP 구성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기여도를 나타내며 여전히 美 경제성장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함.
 - 정부지출의 확대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2004년 1분기 이후 최고인 3.2%의 증가율을 기록함.

- 미국경제가 3분기에 견실한 성장세를 시현함에 따라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로 미국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하반기 경제성장 지속에 대한 기대를 높여줌.

- 3분기 실질 GDP 증가율 발표에서 또 하나 긍정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어 있다는 점임.

- 美 연준리(FRB)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늠하는 데 참고하고 있는 근원인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3분기에는 1.3%(연율 기준) 상승하는 데 그쳐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표 2-1. 미국경제의 실질 GDP 증가율 추이

(단위: %, 연율)

	2004 1/4	2/4	3/4	4/4	2005 1/4	2/4	3/4
실 질 G D P	4.3	3.5	4.0	3.3	3.8	3.3	4.1
개인소비지출	4.7	1.9	4.4	4.3	3.5	3.4	4.1
비주택고정투자	7.9	13.5	11.8	10.4	5.7	8.8	8.5
수 출	5.0	6.9	5.5	7.1	7.5	10.7	2.5
수 입	12.0	4.5	4.7	11.3	7.4	-0.3	2.4
정 부 지 출	3.3	2.3	1.8	0.9	1.9	2.5	2.9

주: 수출과 수입은 서비스부문 포함.

자료: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EA),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Quarter 2005(Advance), October 28, 2005

- 최근 소비자물가는 에너지가격 상승에 의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7월과 8월에 연속 전월대비 0.5%의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9월에는 25년 만에 최대인 1.2%의 상승률을 기록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자극함.
- 그러나 변동성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가격을 제외한 근원소비자물가의 경우 7월부터 3개월 연속 전월대비 0.1%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9월 전년 동기대비 상승률도 2%에 머무르고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되어 있다고 판단됨.
- 허리케인과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전반적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고용과 산업생산은 허리케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9월 비농업부문고용은 2년 만에 처음으로 8,000명 감소하였으며 10월에는 증가세로 반전되었으나 고용증가 규모는 56,000명으로 카트리나 이전 월평균 195,00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 산업생산은 2005년 4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보잉사의 파업사태 여파로 9월 1.3%의 감소세로 반전됨.
 - 美 연준리(FRB)는 허리케인이 9월 산업생산을 1.7%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
- 2005년 들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무역수지 적자 지속에 힘입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2005년 1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957억 달러로 GDP 대비 6.5%(연율 기준)를 기록함.
- 2005년 2/4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경상이전수지 적자 축소(263억 달러 → 219억 달러)로 지난 2003년 4/4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GDP 대비 6.3% 규모로 사상 두 번째 수준임.
 - 미국의 2005년 분기별 무역수지 적자(상품 및 서비스수지 포함)는 1분기 1,731억 달러, 2분기 1,733억 달러, 3분기 1,834억 달러로 확대 추세에 있음.
- 2005회계연도 미국의 연방재정수지 적자는 3,190억 달러(GDP 대비 2.6%)로 2004회계연도 4,130억 달러(GDP 대비 3.6%)에 비해 940억 달러 줄어듦.
- 이는 2004회계연도 종료 이후 미국경제의 호황으로 세수입(14.6% 증가)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임.
 - 그러나 허리케인 관련 재정지출이 추가로 이루어지고 이라크 관련 국방지출이 지속될 경우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美 연준리(FRB)는 11월 1일 열린 2005년 일곱 번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단기 정책금리인 연방기준금리(federal funds rate)를 3.75%에서 0.25% 포인트 오른 4%로 인상함.

- 이번 금리인상은 2004년 6월 이후 12번째 연속 단행한 것으로 연방기준금리는 지난 2001년 9.1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나. 주요 이슈

- 고유가에서 비롯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허리케인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3분기에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미국경제가 성장 모멘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허리케인이 3분기 실질 GDP에 미친 정도를 정확하게 추산할 수 없으나 대체적으로 0.5~1.0% 포인트 감소시킨 것으로 추정되는바, 만일 허리케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3분기 실질 GDP 증가율은 4%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 또한 소비지출의 확대, 기업수익성 호전, 노동생산성 향상 추세 등 경제의 펀더멘털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미국 경제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 그러나 카트리나 이후 고용불안과 유가급등, 인플레이션 압력과 FRB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의 가능성 등은 향후 미국경제 향방에 위협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음.
- 또한 미국 주택가격의 과도한 조정으로 인해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어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위험이 있음.
 - 미국의 주택가격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상승세를 시현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 주택가격의 버블논쟁이 가속화됨.
 - OECD⁹⁾에 따르면 최근 미국의 가계소득 대비 평균주택가격의 비율 (Median home price-income ratio)이 3.5에 육박하였으며 이는 역대 평균치보다 33% 높은 수준임.

9)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2005. 10)

- 가계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의 지속적인 상승은 주택수요를 감소시켜 주택가격의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아울러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상수지 적자도 급격한 환율변동이나 금리인상을 자극함으로써 미국경제에 중장기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GDP 대비 6%를 넘어서고 있으며 2005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미국의 대외순채무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임.
-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미국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저하로 경상수지 적자보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미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경착륙을 야기할 수 있음.

표 2-2. 미국 경제성장 전망에 중요한 요인

긍정적 요인	위협 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상보다 높은 3분기 실질 GDP 증가율 (3.8%): 허리케인이 경제성장엔 미친 영향이 제한적임→2006년 경제성장 기대 · 기업수익성(corporate profit) 향상 : 2004년 3/4분기 이후 상승세 지속→기업투자 확대 기대→국내수요 팽창→경제성장 · 비농업부문 노동생산성 향상 지속 · 버냉키 차기 FRB의장으로 내정: 향후 통화정책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금융시장 안정 및 급격한 금리인상 가능성 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불안 지속 및 에너지가격 상승→소비자 신뢰지수 하락(8월 이후 감소세)→향후 소비지출 위축→경제성장 둔화 · 고유가 지속→인플레이션 압력대두→공격적인 금리인상→경제성장 둔화 · 주택시장의 급격한 가격조정→파이낸스 부의 효과(wealth effect)→소비위축→경제성장 둔화 · 경상수지적자 확대지속→대외순채무 증가→대외신인도 저하→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달러의 대폭 약세→장기금리 상승→경제성장 둔화

다. 2006년 성장 전망

□ 경제성장률 전망

- 2006년 상반기 미국 경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타의 피해복구에 따른 건설부문 지출 증가와 유가 안정에 힘입어 3.5~4.0%의 실질 GDP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금리 전망

- 해외 투자자들의 수요 부진으로 미국채 수익률은 상승세를 타고 있음.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1월 4일 4.57%를 기록함. 이같은 수익률은 카트리나가 미국 남부를 강타했던 지난 9월 1일 당시 10년물 국채 수익률 3.98%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임.
- 이미 12차례에 걸쳐 25bp씩 인상시켜온 연방기준금리도 2006년 중반까지 4.5~5.0%까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이와 같은 장단기금리의 동반상승으로 장기금리에 민감한 주택시장의 하향조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가계부문 전망

- 2006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신규주택건설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감소추세로 돌아선 주택판매와 더불어 주택부문의 경기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가계부문의 소비 증가율은 2005년의 3.5%에서 2006년에는 2.1%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기업부문 전망

- 기업의 세후이윤(재고평가와 감가상각 포함) 증가율이 2003년 15.3%, 2004년 11.3%에서 2005년은 8%로 낮아지고 2006년에도 하향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이는 시간당 산출물(output growth per hour)의 증가추세가 둔화된 반면, 단위노동비용(unit labor cost)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임.

- 그러나 기업은 풍부한 현금유동성을 바탕으로 자본재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또한 허리케인의 피해복구를 위한 비주거용(Nonresidential) 구조물(Structures)에 대한 투자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업부문의 고정투자는 2005년의 8.6%보다 약간 높은 9% 안팎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부문 전망

- 허리케인에 따른 구호비와 건설비용 증가로 인한 재정지출의 증가로 2005년은 2.0%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지출은 이보다 높은 3% 내외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물가 전망

- 2005년 9월 중 CPI는 1.2% 증가하여 1979년 12월 이래로 월간 최고 증가율을 기록함. 또한 전년 9월 대비 4.7% 상승함. 그러나 이는 에너지 부문의 증가율 12.0%에 기인하는 바가 큼.
- 2005년은 2년에 걸쳐 상승추세이던 유가에 카트리나에 의한 석유관련시설 피해가 더해 물가상승 압력이 컸던 것으로 생각됨. 2005년은 생산자물가지수상승률은 4.5%,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에는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3.7%,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3.1%로 물가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고유가는 근원소비자물가지수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2005년은 중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도 2.5%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가. 동향

- 중국은 2005년은 1사분기 9.4%, 2사분기 9.5%, 3사분기 9.4%의 성장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 이래 고도성장 추세(9% 이상)를 이어가고 있음.
 - 산업별로 볼 때, 2005년 1~3사분기 중 1차산업은 5.0%, 2차산업(건설업 포함)은 11.1%, 3차산업은 8.1%의 부가가치 생산 증가가 있었음.

표 2-3. 2003~2005년 3/4분기 주요경제지표

(단위: %)

	2003	2004	2005					
	연간	연간	1사분기	2사분기	7월	8월	9월	3사분기
GDP 성장률	9.3	9.5	9.4	9.5	9.4			
공업생산	17.0	11.5	10.5	16.5	16.1	16.0	16.5	16.2
소매판매	10.9	13.3	13.7	12.6	12.7	12.5	12.7	12.6
*고정자산투자	28.4	25.8	22.8	25.4	26.1			
수 출	34.6	35.4	35.3	30.9	28.7	32.1	25.9	28.9
수 입	39.9	36.0	14.0	15.4	12.7	23.4	23.5	19.9
환율(元/달러)	8.28	8.28	8.28	8.28	8,108	8,097	8,093	8,099
소비자물가	3.2	3.9	2.8	1.7	1.8	1.3	0.9	1.3
외국인직접투자	37.3	13.3	9.3	-10.4	-4.9	-0.3	2.9	-0.8
총통화(M2)	19.6	14.6	14.0	14.8	16.3	17.3	17.9	17.2

주: *고정자산투자 분기별 데이터는 누계치임.

자료: 中國國家統計局(NBS), KOTIS, 한국은행 북경사무소.

- 2005년 1~3사분기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 총액은 5조 7,061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1, 2, 3사분기에 각각 22.8%, 25.4%, 26.1%를 기록, 증가폭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임.
 - 지역별로 보면, 1~3사분기 기간 중 도시(城鎮)지역의 고정자산투자액은 4조 8,741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27.7% 증가(증가폭은 지난해에 비해 2.2% 포인트 하락)하였음. 부동산부문에 대한 투자는 1조 378억 위안으로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총액의 21.3%를 차지하며 동기대비 22.2%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1~3사분기 기간 중 1, 2, 3차 산업에서 각각 485억 위안, 2조 528억 위안, 2조 7728억 위안의 고정자산투자가 이루어져, 동기대비 18.7%, 35.5%, 22.7%의 증가율을 시현하였음.
- 2005년 1~3사분기 기간 중 전체 국유공업기업 및 연간 판매수입액 500만 위안 이상 비국유공업기업의 공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6.3% 증가한 5조 450억 위안을 기록하였음.
- 기업종류별로는 국유 및 국유주식지배기업이 11.3%, 집체기업이 11.9%, 주식제기업이 17.9%, 외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투자기업이 16.2% 증가하였음.
 - 산업부문별로는 중공업이 16.9%, 경공업이 14.9% 성장했음.
 - 제품별로는, 같은 기간 중 석탄은 10.2%, 원유는 4.2%, 발전량은 13.4%, 철강제품은 품목에 따라 25.8%~31.0%, 시멘트는 10.6%, 자동차는 10%(이 중 승용차는 17.7%) 증가하였음.
- 2005년 1~3사분기 기간 중 소비(소비재 판매총액)는 13.0%(물가인상요인을 제하면 12.1%) 늘어난 4조 5,081억 위안을 기록, 성장을 뒷받침하였음.
- 3사분기 중 도시지역의 소비재 판매액은 13.6% 증가하였고, 대부분 농촌지역인 현급 이하에서는 10.6% 증가하였음.
 - 소비증가는 도시와 농촌주민의 가처분 소득이 1~3사분기 중 각각 9.8%, 11.5% 상승한 것과 궤를 같이함. 하지만 도시와 농촌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7,902위안과 2,450위안으로 아직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05년 1~3사분기 기간 중 소매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0.8%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동기대비 2.0%, 생산자물가지수(PPI)는 5.4% 상승하였음.
-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2.0%)은 지난해에 비해 2.1% 포인트 하락한 것이며, 특히 9월 소비자물가지수 0.9% 상승은 지난해에 비해 4.3% 포인트나 하락한 것임.

-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폭 하락은 주로 식료품 (특히 곡물) 가격 하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며, 수도, 전기, 가스 등 주거비용은 5% 이상 상승해 상승압력으로 작용하였음.
 - 올 들어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은 9.2%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기업의 생산비 부담이 커졌으나, 국내시장 공급과잉과 과열경쟁으로 인하여 최종 소비재 가격인상은 매우 제한적이었음.
- 2005년 1~3사분기 수출입 총액은 1조 247억 달러로 2004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조 달러를 돌파했음.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31.3% 증가한 5,466억 달러, 수입은 16.1% 증가한 4,781억 달러를 기록함. 무역흑자는 685.4억 달러를 기록함.
- 상반기 내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30%를 웃도는 급증세를 유지하던 수출은 3사분기 들어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였음(전년동기대비 증가율: 7, 8, 9월 각각 28.7%, 32.1%, 25.9%).
 - 수입은 올 2월 마이너스(-5%)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3월부터 7월까지의 증가율이 꾸준히 둔화(18.6% → 12.7%)되다가 8, 9월에 각각 23.4%, 23.5%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회복하였음.
 -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급증한 무역수지 흑자는 3사분기 들어 그 증가폭이 다소 감소하였음.
 - 2005년 들어 3사분기까지 무역흑자의 명목 GDP 성장기여율은 1, 2, 3사분기에 각각 49.4%, 44.5%, 40.2%였음.
- 2005년 1~3사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계약액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21.8% 증가한 1303.3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실제투자액은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433억 달러에 머물렀음.
- 외국인직접투자는 실제투자액 기준으로 올 2사분기에 줄곧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3사분기 들어서는 그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었고 9월에는 전년동기대비 2.9% 증가하였음.

- 1~3사분기 중 외환보유고는 전년동기대비 49.5%의 빠른 증가율을 보여 2005년 9월말 현재 7,690억 달러로 이는 GDP 규모의 12%에 달하는 것이며 연초에 비해서는 1,591억 달러 증가한 것임.
 - 다만, 9월 중 외환보유고 증가는 158억 달러로 이는 2005년 들어 가장 낮은 월별 증가액임. 최근의 외환보유고 증가추세 둔화는 무역흑자폭의 감소와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세 둔화에 따른 것임.
- 총통화(M2)는 9월말 잔액기준으로 28조 7천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17.9% 증가.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4% 포인트 높아졌음. 반면 M1은 10조 1천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1.6% 증가했고, 증가폭은 전년에 비해 2.1%포인트 낮아졌음.

나. 주요 이슈

1)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

- 2005년 들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2005년 1~3사분기 흑자 누계액이 685.4억 달러에 달하였음. 이는 지난해 전체 흑자액의 2.14배에 이르는 규모임.
 - 이는 2005년 들어 수출증가율(1~3사분기 31.3%)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수입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되었기 때문임.
 - 2004년 상반기에 43%이던 수입증가율은 2004년 하반기에 30%로, 그리고 2005년 1~3사분기 중 16.1%까지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음.
 - 다만, 3사분기에는 수입증가폭이 다시 늘고 무역흑자 증가폭은 다소 완화되었음.
- 주요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철강, 화학제품, 차량 및 부품의 수출호조 및 수입둔화 현상이 두드러진 가운데,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류와 같은 중간 자본재의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음.

표 2-4. 중국의 무역수지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3사분기
수출	249,240 (27.7)	266,661 (7.0)	325,642 (22.1)	438,473 (34.6)	593,647 (35.4)	546,605 (31.3)
수입	225,095 (35.8)	243,567 (8.2)	295,303 (21.2)	413,096 (39.9)	560,811 (35.8)	478,063 (16.1)
무역수지	24,145	23,094	30,339	25,377	32,836	68,542

주: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KOTIS, 중국측 통계.

- 2005년 들어 무역흑자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 경기진정 및 투자억제책에 따른 자본재 수입의 감소 (2) 중국기업 및 중국 내 외국인 투자기업의 역량강화에 따른 수입대체 효과 (3) 인민폐 평가절상 기대에 따른 무역상의 수출입 시기 조정 등을 꼽을 수 있음.
- 첫째, 2004년 이래 실시된 경기진정책의 영향으로 중국내 투자 열기가 누그러져 자본재 수입이 줄어든 데서 무역흑자 급증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중국정부는 통화량 및 대출규모 억제, 지급준비율 인상, 토지관리 강화, 건설프로젝트 정리, 원자재 사용 감축을 골자로 한 경기진정책을 2004년부터 실시해왔음.
 - 이같은 일련의 조치에 따라 2005년 1~3사분기 사회 전체 고정자산투자 증가율(26.1%)은 지난해에 비해 1.6% 포인트 낮아지는 등 투자열기가 다소 억제되었고, 그에 따라 투자재 수입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더불어, 2003년 이후 지속된 경기진정책으로 신규투자가 적어지면서 현재 진행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많은 수가 후기공정에 접어들어, 투자수요가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기계설비보다 국산 마감재로 바뀌면서 수입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표 2-5. 최근 중국의 주요 경기진정책

기관	일시	내용
인민은행	2003. 8. 23	은행지급준비율 6%에서 7%로 인상
	2004. 3. 24	개별 금융기관의 금융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급준비율제도 도입, 리파이낸싱 및 재할인을 인상
	2004. 4. 12	모든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7%에서 7.5%로 인상, 자본이 불충분한 은행들에 대해 지급준비율을 7.5%에서 8%로 인상
국무원	2004. 4. 28	철강, 자동차, 부동산부문 신규 대출 금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2004. 5. 9	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전월대비 1%를 상회하거나 3개월 연속 전년대비 4%를 상회할 경우에 지방당국이 3개월 동안 가격인상 조치를 보류하도록 지시

-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의 감소(1~3사분기 전년동기대비 2.1% 감소한 433억 달러)에 따라 기계설비 수입 수요와 가공수출용 중간재 수입수요가 줄어든 것도 수입증가율 둔화와 무역흑자폭 증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둘째, 중국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와 부품소재 산업부문 외자기업의 중국 내 설립으로 인하여, 수입에 의존하던 자본재가 국산재화로 대체되는 수입대체 효과도 최근 무역흑자 증가의 한 원인으로 판단됨.

- 최근 자본집약적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늘어나고 기술이전에 따른 중국기업의 기술발전이 진전되면서 중화학공업 및 부품산업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이에 따라 중국내 부품조달비중 확대에 따른 수입대체효과가 최근의 수입증가율 둔화를 초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의 공업생산액 가운데 중공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0.2%에서 2004년 66.5%로 증가하였음.

- 2005년 들어 대표적인 중간재 품목인 전기기기 및 부품, 기계류, 정밀

기기, 철강, 철강제품, 자동차 부품의 수입증가율이 크게 감소한 반면 수출증가율은 상승함.

- 셋째, 2005년 상반기 중 인민폐 평가절상 기대가 높아진 가운데 수출입 상들이 평가절상으로 인한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수출을 앞당기고, 수입을 늦춘 데 따른 기술적인 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요컨대 최근 중국의 무역흑자 급증에는 수출입 시기조정에 의한 기술적, 단기적 요인과 함께 투자 내용의 변화 및 중국 기업에 의한 수입대체 효과라는 중장기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올 1~3사분기 중국의 수입증가율 둔화는 기존의 과잉설비투자 억제와 인민폐 평가절상 기대에 따른 수출입 시기조정과 같은 기술적 요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부품분야의 수입대체가 심화될 경우 수입증가율의 둔화세가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한편 많은 국제경제전망기관들은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급증이 일시적 추세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즉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과거의 200~300억 달러 수준에서 앞으로는 600억~1,000억 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5년 980억 달러, 2006년 1,060억 달러, 2007년 1,070억 달러 (Global Insight), 2005년 1,079억 달러, 2006년 859억 달러, 2007년 648억 달러(EIU)로 전망함.
-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 급증에 따라 중국에 대한 각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2005년 7월의 2% 절상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평가절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지속될 것임.
 - 그러나 중국의 전세계 무역수지 흑자 급증에 따라 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역조의 시정을 요구하는 중국의 목소리는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수출과 투자 의존형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 최근 중국의 고도성장은 해외수요(수출)와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최근 무역흑자의 급증으로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율이 크게 높아졌음.
 - 또한, 최근 1~2년 연이은 경기진작책에도 불구하고 고정자산투자가 20%대의 높은 성장을 구가하며 GDP 성장을 지지하고 있음.
 - 더욱이 2005년 1, 2, 3사분기의 고정자산투자증가율은 각각 22.8%, 25.4%, 26.1%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2005년 9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29.4%에 달함.
 - 또한, 2006년에는 11차 5개년계획 원년을 맞아 새로운 투자프로젝트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GDP 성장이 투자증가에 크게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1) 공급과잉 유발과 (2) 경제성장의 구조적 불균형이란 차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과잉투자에 의한 공급과잉(과잉 생산능력)으로 경쟁이 격화돼 기업의 이윤율이 크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600종 주요 소비재와 300종 주요생산재 수급상황 조사보고>에 따르면 600종 주요 소비재 중 수급균형을 이룬 것은 26.7%, 공급과잉인 상품은 73.3%에 달했음. 반면 공급부족을 보이는 상품은 하나도 없었음.
 - 2005년 1~3사분기 중, 전국 대규모 공업기업의 적자 총액은 1,532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57.6%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50.4%포인트 상승한 것임. 특히 국유 및 국유주식지배기업의 적자총액은 804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93.5% 증가했음.
 - 이윤을 낸 기업은 석유채굴, 철강, 석탄, 화공, 섬유 등 5개 산업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상반기 중 5대 산업의 이윤은 전산업 이윤의 99.1%를 차지), 특히 석유채굴한 산업의 이윤이 전산업이윤의 56.1%를 차지하였음.

- GDP 성장이 수출과 투자 증가에 크게 의존하는 반면, 소비의 GDP 성장 기여율은 낮아지고 있어, 성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005년 1~3사분기 소비(소비재 판매총액)는 전년동기대비 13.0%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투자를 대신할 성장엔진으로서는 부족하다는 평가.
 - 따라서 과잉생산과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될 경우, 민간부문의 투자가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국의 성장패턴은 국내 소비부족과 저축과잉에서 기인하는 바가 큼.

- 대규모 무역흑자 역시 저축과잉에 의해 추동되고 있는바, 대외적인 무역불균형(무역흑자)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도 국내 소비진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중국은 2006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혜택과 소비자금융 확대 등의 조치들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미흡한 사회보장으로 인해 노후대비, 의료, 교육을 위한 개인의 미래대비형 저축(prudent saving)이 많고, 이러한 구조적인 요인은 단시일 내에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요컨대 향후 중국 경제성장의 구조적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은 내수소비가 얼마만큼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판단됨.

3) 위안화 평가절상

- 중국은 2005년 7월 부분적인 환율제도 변경 및 소폭의 평가절상을 단행하였음.
 - 중국 인민은행은 7월 21일 오후 미달러화에 사실상 페그되어 있던 환율제도를 변경하여 복수통화 바스켓을 환율결정에 참고하는 관리 변동환율

제로 하였음.

- 새로운 환율제도는, 복수통화 바스켓에 의해 위안화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복수통화 바스켓을 “참고”하여 정책당국이 환율을 결정하는 시스템임.
- 환율제도 변경과 함께 미달러 대비 위안화의 명목환율을 2% 절상, 대미 달러 환율은 8.28에서 8.11로 낮아졌음.
- 그러나 달러화에 대한 일일환율 변동폭(band)을 상하 0.3%로 제한하였으며, 바스켓에 편입될 외국통화의 가중치는 정확히 공표하지 않았음.

□ 위안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제도변경 이후 미미하나마 점차 낮아지는(절상되는) 추세임.

- 7월 21일 이후 11월 15일까지 위안화는 달러화에 대해 약 2.3%, 유로화, 일본 엔화, 홍콩달러에 대해서는 각각 5.14%, 6.4%, 2.1% 절상되었음.

□ 한편 최근 중국 인민은행장은 필요하면 환율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혀, 보다 실질적인 인민폐 절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임.

표 2-6. 중국의 주요통화에 대한 환율(2005.7.21~11.15)

	달러	EURO	엔	홍콩달러
2005-07-21	827.65	999.14	7.3133	106.37
2005-07-25	811.11	1001.41	7.3059	104.78
2005-08-01	810.56	982.21	7.2327	104.23
2005-08-15	809.8	1010.36	7.3859	104.21
2005-09-01	809.98	986.74	7.2654	104.17
2005-09-15	809.12	994.69	7.3113	104.24
2005-10-08	809.2	973.88	7.1529	104.27
2005-10-17	808.96	972.05	7.0559	104.24
2005-11-01	808.45	974.69	6.9826	104.25
2005-11-15	808.31	947.75	6.8485	104.17

자료: 중국 외환관리국

- 더욱이 2005년 들어 미국과 EU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민폐 평가절상의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임.
 - 2005년 1~8월 중 중국은 미국과 EU에 대해 698.3억 달러(전년동기대비 50.7% 증가), 434억 달러(전년동기대비 124.7% 증가)의 흑자를 기록했음.
 - 특히 미국은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을 경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7.5%의 보복 관세를 매기자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놓고 압박을 가하는 상태임.

- 이에 따라 중국은 향후 국제수지 추이를 보아가면서 환율의 변동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안화를 추가 절상시킬 가능성이 있음.

다. 향후 경제 전망

- 중국은 2005년 9.3%, 2006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은 중국의 11차 5개년계획(2006~2010년)이 시작되는 첫 해로서 동 계획에 따른 투자계획의 집행 등을 통해 견실한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고용창출을 위한 고도성장을 중시하는 중국 정부의 정책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World Bank와 EIU는 200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8.7%와 8.0%로 예측하였음.

- 수출은 2004년 4사분기 성장률이 매우 높아, 2005년 4사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전기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2005년 무역흑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르고, 이같은 수출증가세와 대규모 무역흑자의 발생은 2006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표 2-7. 향후 5년간 중국의 주요경제지표 전망

주요경제지표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실질 GDP 성장률, %	9.3	8.0	7.5	7.0	7.0	6.9
소비자물가 상승률, %	1.9	1.0	2.2	2.4	3.0	2.8
재정적자규모(GDP대비, %)	-1.7	-1.9	-1.7	-2.0	-2.3	-2.4
경상수지흑자(GDP대비, %)	6.8	4.6	2.5	2.2	1.7	1.0
위안화-달러 환율	8.2	7.9	7.6	7.6	7.5	7.5

자료: EIU, 2005

- 인민폐 환율은 보다 실질적인 추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5% 내외)으로 전망됨.
- 이는 2005년 7월 이후 소폭의 위안화 평가절상이 중국의 수출경쟁력과 경제성장세에 큰 충격을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같은 기간 중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 추가적인 평가절상을 유도하는 대내외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
 - 중국의 대규모 무역흑자는 2006년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무역마찰 심화를 피하기 위한 환율조정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그러나, 중국의 경제성장이 수출과 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에 심각한 차질을 빚어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준의 파격적인 평가절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이 해외수요(수출)와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중국 정책당국도 인정하고 있어, 국내소비 진작과 보조를 맞춰 점진적으로 인민폐의 평가절상을 용인할 것으로 전망됨.
 - 인민폐의 평가절상은 지난 2005년 7월 21일과 같이 단번에 환율을 조정하기보다는 환율의 일일 변동을 확대해 결과적으로 절상을 용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3. 일본

가. 2005년 동향

- 일본 내각부가 11월 11일 발표한 1차 속보에 의하면, 2005년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대비 0.4%(年率 1.7%)를 기록, 4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
 - 3분기 개인소비, 설비투자, 수출 항목 모두 증가세를 시현하였지만, 증가율이 둔화되어 GDP 성장률도 전분기에 비하여 둔화됨.
 - 이는 지난 상반기의 높은 성장률(年率 1분기 6.3%, 2분기 3.3%)에 대한 반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됨.
 - 수요항목별로 살펴보면, 모든 내수항목이 2년 만에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내수가 경기회복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이 부각됨.
 - 한편,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한 결과, 외수는 GDP 성장률 상승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8. 일본의 주요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기대비, %)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		2005년			기여도
	실질	실질	3/4	4/4	1/4	2/4	3/4	
실질GDP성장률	2.0	1.9	-0.1	0.1	1.5	0.8	0.4	기여도
개인소비	0.5	1.2	-0.1	-0.3	1.3	0.7	0.3	0.2
설비투자	8.3	5.1	0.8	0.3	3.0	3.4	0.7	0.1
주택건설투자	-0.3	2.1	0.5	0.3	-1.0	-2.1	1.5	0.1
공공투자사업	-9.0	-15.1	-2.9	-0.3	-0.3	-1.9	1.0	0.0
수출	10.0	11.9	0.5	1.6	-0.0	3.1	2.7	0.4
수입	3.1	9.4	1.7	2.5	0.1	2.3	3.9	-0.5

주: 회계연도는 당해년 4월부터 익년 3월까지

자료: 일본 내각부(2005. 11. 11), 「平成 17년 7-9月期 四半期別 GDP 1次速報」

나. 주요 이슈

- 실질 GDP 성장률의 부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개인소비와 설비투자, 주택건설투자, 수출 부문이 각각 0.2%, 0.1%, 0.1%, 0.4% 포인트로 플러스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개인소비는 1분기 1.2%, 2분기 1.7%의 높은 성장률로 내수위주의 성장세를 견인해 왔으나, 3분기에는 0.3%의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는 데 그침.
 - 3분기 고용자수가 전년대비 0.9% 증가하고, 급여총액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등 가계의 고용·소득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며, 최근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산효과가 소비심리 개선으로 이어져 개인소비 지출은 완만한 증가세를 시현하였음.
 - 설비투자도 개인소비와 함께 경기회복세를 견인해 왔으나, 1분기 3.0%, 2분기 3.4%에서 3분기 0.7%로 둔화됨. 그러나, 높은 기업수익과 왕성한 설비투자 의욕을 감안할 때, 설비투자 감속에 대한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임.
 - 금번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는 상반기 3%대의 높은 증가율을 시현한 데 따른 반등으로 해석되고 있음. 업종별로 전기통신기기, 산업기계, 정밀기계 업종의 설비투자가 증가한 반면, 빌딩 및 공장 등 건설업종의 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日銀의 단칸(단기경제관측) 조사는 전산업의 2005년도 투자계획 금액을 8.7% 증가로 기록, 전년실적을 상회할 전망이다.
 - 또한, 일본정책투자은행의 조사에서도 일본기업의 2005년 설비투자는 제조업에서 19.8%, 비제조업에서 6.9%, 전산업에서 11.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공공투자사업은 전분기 대비 1.0%로 6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됨. 이는 일본정부의 공공투자 억제 방침이 견지되고 있는 상황하에, 태풍으로 인한 재해복구사업의 증가로 공공투자사업이 일시적으로 증가된 데 따른 결과임.
 - 수출은 2분기 3.1%에서 3분기 2.7%로 소폭 둔화되었으나, 동 기간 수

입은 2.3%에서 3.9%로 수출을 상회한 결과, 외수는 GDP 성장률 상승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함.

- 수출은 IT 관련 재고조정의 진전과 중국을 비롯한 대아시아 반도체 수출 회복에 힘입어 2.7% 증가함. 또한 최근의 엔화 하락의 영향으로 수출회복기조는 향후 지속될 전망이다.

□ 3분기 플러스 성장에 대한 국내외 수요 기여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최근 일본경제는 민간수요 중에서도 외수보다는 내수 중심의 원동력을 기반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특징이 입증됨.

- 이는 수출 등의 외수 기여도가 -0.1%인 데 반하여, 설비투자 및 개인소비 증가 등의 내수 기여도가 0.5%를 기록함.
- 1990년대에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이 중심이었다면, 금번의 경기회복은 개인소비 및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경제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가 증가하는 내수 회복의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한편,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해 있는 상황임.

- 석유가격 상승은 기업수익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에너지관련 지출의 증대로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임.
- 일본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증대시키고 있는 배경에는 기업수익의 급속한 개선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석유를 비롯한 소재 가격의 상승, 외수 둔화 등은 기업수익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는 일본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원가율(매출 원가/매출액)을 감소시켜 왔지만, 최근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율 급증이 운수업과 숙박업 등의 기업수익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 아직 고용회복이나 임금인상 등 소비회복의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단계임을 감안할 때, 향후 지속적인 석유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기업수익이 둔

화된다면, 고용·임금의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여 소비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 2006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축소가 가처분 소득감소로 이어져 뚜렷한 개인소비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금번 GDP 성장률에서도 수출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가한 결과, 외수에 의한 일본의 경기회복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이 입증됨.
- 게다가 세계경제의 둔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작년 중반 이후부터 부진했던 수출이 다시 경기회복의 견인역을 담당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한편, 일본중앙은행(日銀)은 2005년 9월 『경제·물가 전망 리포트』에서 소비자물가지수의 마이너스 탈피 시기가 2006년도에서 2005년으로 앞당겨져 달성될 것으로 수정 발표함.

-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들어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0.2% 에서 0.0% 대를 추이해 왔으나, 석유가격 상승이 물가로 연동되기 시작함에 따라 연내에 플러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또한, 日銀은 양적 완화정책의 해제 조건으로 소비자물가 상승과 경기회복의 지속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양적 완화정책의 해제 시기를 2006년도 이전 또는 수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방침을 시사하고 있음.
-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디플레이션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적 완화정책의 유지를 촉구하고 있어, 일본정부와 日銀의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
- 재무성은 양적 완화정책 해제에 대한 관측이 확대된다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인하여 국채 이자지불비용이 급증할 것을 우려하면서, 양적 완화정책의 지속적인 유지를 촉구하고 있음.
- ECD는 2006년도에 임금이 증가세로 전환되고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 대비 0.1% 상승하여 디플레이션이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日銀에 대해 인플레이션이 충분한 수준으로 높아질 때까지 양적

완화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함.

다. 2006년도 전망

- 일본 및 해외 경기전망기관들은 2005년 일본경제가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주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으나, 2006년에도 순조로운 회복 기조를 이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표 2-9. 주요기관의 일본 GDP 성장률 예측

(단위: %)

	해 외 기 관			국 내 기 관		
	OECD	IMF	Global Insight	JCER	JRI	일본정부
2005년	1,5	2,0	2,3	1,7	2,0	1,6
2006년	1,7	2,0	1,6	0,9	2,2	-

주 : 1) OECD는 2005년 5월, IMF는 2005년 9월, Global Insight는 2005년 10월 발표자료를 참조함.

2) JCER(일본경제연구센터) 2005년 8월, JRI(일본총합연구소)는 2005년 8월 발표자료, 일본정부는 2005년 1월 전망치 자료(회계연도 기준)를 참조.

자료: 각 연구기관 통계자료 참조

- 2005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일본 민간조사기관(31개)의 평균 예측치는 1.9%(최대치 3.0%, 최소치 1.2%, 2005년 8월 발표치)로 2005년도에도 작년 정도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요사노 경제재정장관도 3분기 GDP실적이 기업부문의 호조가 가계부문으로 파급되어 완만한 성장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05년도 실질 GDP 실적이 정부전망치(1.6%)를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함.
- 한편, JCER은 실질 GDP 성장률이 2005년도에 정부전망치를 상회하는 1.7%를 시현하나, 석유가격 상승, 기업수익의 둔화, 설비투자 감소 등의 리스크 요인으로 인하여 2006년도에 0.9%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JCER은 GDP 성장률의 추이가 3분기 연속 서서히 둔화되고 있는 점이 경기침체에서 완전히 탈피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반증한다고 지적함.
- 해외예측기관들은 2005년 상반기 일본경제의 고성장을 감안하여 최근에 IMF와 Global Insight 모두 2005년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일본경제 회복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음. 한편, 2006년 일본의 GDP 성장률은 약간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1~2%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IMF는 9월에 일본의 2005년과 200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 2.0%로 前회 조사(4월 조사)에 비하여 각각 1.2 포인트, 0.1 포인트 상향조정하였음.
 - IMF는 일본경제가 1990년 공공투자에 의한 2차례의 경기회복과 미국의 IT 버블에 의한 2000년의 경기회복과는 질적으로 차별성을 가진 내수주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06년도에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Global Insight는 10월에 2005년과 2006년 전망치를 각각 2.3%, 1.6%로 수정 발표함. 2005년 전망치는 前회 조사(5월 조사)에 비하여 0.9 포인트 상향조정된 반면, 2006년 전망치는 1.0 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임.
 - OECD는 5월 24일 “Economic Outlook”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기업 수익 증가를 배경으로 설비투자과 노동시장의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가 정체국면에서 탈피할 것으로 전망함.
 - OECD는 일본의 2005년과 2006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5%, 1.7%로 전망함.
- 향후 일본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 등으로 단기적으로 위축될 수도 있지만, 2005년과 2006년에는 기본적으로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하는 내수주도의 성장세를 견지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 실질 GDP 성장률은 2005년 정부전망치를 상회하여 2%대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2006년에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1%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4. 유럽

가. 2005년 동향

- EU 경제는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부진하였으나 2005년 3/4분기부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2003년 한때 각각 1.2%, 0.7% 성장으로 부진을 면치 못했던 EU-25 및 유로지역(Euro-zone)¹⁰⁾ 경제는 2004년에는 세계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확대에 힘입어 각각 2.4%, 2.1% 성장하여 경기가 호전되었음.

표 2-10. EU 및 주요 회원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4		2005		
			3/4	4/4	1/4	2/4	3/4
EU - 25	1.2	2.4	0.3	0.3	0.3	0.4	0.6
유로지역	0.7	2.1	0.3	0.2	0.3	0.4	0.6
독 일	-0.2	1.6	-0.1	-0.1	0.6	0.2	0.6
프 랑 스	0.8	2.3	0.1	0.7	0.3	0.1	0.7
이탈리아	0.3	1.2	0.4	-0.4	-0.5	0.7	0.3
네덜란드	-0.1	1.7	0.6	0.2	-0.8	1.1	0.3
스 페 인	3.0	3.1	0.7	0.9	0.9	0.8	0.8
영 국	2.5	3.2	0.4	0.5	0.3	0.5	0.4

주: 분기별 성장률은 전기대비 기준임.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10) 유로지역(Euro-zone)은 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Monetary Union)에 가입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일통화(유로화)를 사용함. 회원국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그리스 등 12개국임.

- 그러나 2004년 하반기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세계경기 호조세 둔화, 고유가, 유로화 강세, 주요 유로지역 국가들의 내수위축 등으로 인해 성장이 다시 정체됨.
- EU 경제는 2005년 상반기에 전기대비 0.3~0.4% 성장에 머물렀지만 2005년 3/4분기에 수출 및 기업투자 확대에 힘입어 0.6% 성장함으로써 다시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고 있음.

□ 주요국별로 보면, 그 동안 침체되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은 2005년 중반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스페인 및 영국은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음.

- 2005년 2/4분기까지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던 EU 경제대국, 독일과 프랑스는 3/4분기부터 회복세를 보여 3/4분기 성장률이 각각 전기대비 0.6%와 0.7%를 기록하였음.

표 2-11. EU-25의 분기별 실질 GDP 증가율

(단위: %, 전기대비 증가율)

	2004		2005		
	3/4	4/4	1/4	2/4	3/4
내 수	0.7	0.6	0.0	0.5	0.4
가계소비	0.3	0.8	0.2	0.3	0.4
정부지출	0.3	0.0	0.2	0.6	0.6
투 자	0.6	0.6	0.0	1.0	1.5
수 출	1.1	0.7	-0.7	2.5	3.0
수 입	2.1	1.5	-1.6	2.7	2.6
GDP	0.3	0.3	0.3	0.4	0.6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 2005년 1/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으로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었던 이탈리아와 네덜란드는 2/4분기에 각각 0.7%, 1.1% 성장함으로써 경기가 반등하였으며, 3/4분기에도 각각 0.3% 성장하며 완만한 성장세를 시현하

고 있음.

- 유로지역 주요국 가운데 가장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스페인은 2005년에도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5년 3/4분기에 0.8% 성장했으며, 2004년 하반기부터 다소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영국도 같은 기간 0.4%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지금까지 경기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민간소비 위축 등 내수부문의 침체였으나 2005년 2/4분기부터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기업활동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계소비와 정부지출 부문은 2005년 3/4분기에 각각 전기대비 0.4%, 0.6% 증가하며 다소 회복세를 나타냈으며, 특히 1/4분기에 0.0% 증가했던 기업투자 부문이 2/4분기 1.0%, 3/4분기 1.5% 증가하여 내수회복에 기여하였음.
- 2004년 상반기까지 EU의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수출부문은 2004년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되어 2005년 1/4분기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지만, 2/4분기에 다시 전기대비 2.5% 증가하였으며 3/4분기에 도 3.0% 증가하였음.

나. 주요 이슈

□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현상¹¹⁾은 EU 경제에 인플레이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제성장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산유국들의 상품주문 증가로 EU 회원국의 수출증대에 기회로도 작용하고 있음.

- 최근 EU 경제의 수출호조와 해외주문 증대는 EU의 경제성장과 사업전망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나, 고유가 현상의 지속으로 세계경제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EU 경제의 성장전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11) 브렌트유(Brent oil)는 2005년 8월말과 9월초 한때 1배럴당 68달러까지 상승하여 신기록을 경신함.

- 특히 2005년 3월 2.0%였던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이 9월에 2.6%까지 증가하는 등 고유가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인플레이션 압력은 민간소비지출 증가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유로지역 수출상품의 중요한 소비자들인 산유국들은 그 동안의 기록적인 고유가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해외주문을 늘리고 있으며 이는 EU 경제의 수출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미달러화 대비 유로화 강세현상이 2005년 들어 다소 진정되면서 기업활동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2004년말 1유로당 1.367달러까지 치솟았던 유로화는 2005년 6월 1.200달러까지 안정되었으며 9월초 1.260달러로 다소 상승하였다가 11월초 현재 다시 1.17달러까지 하락하였음.
- 당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달러화 약세에 따른 유로화 가치의 상승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의 유럽 헌법 부결, EU 예산안 합의도출 실패 등과 같은 정치적 불안과 미국 및 유로지역의 금리격차 확대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 강세현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 상황임.

□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2년 반 동안 2.0%로 유지했던 기준금리를 2005년 12월 1일 개최된 정책이사회에서 2.25%로 0.25% 포인트 인상하였음.

- 에너지가격 상승세의 영향으로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9월 2.6%, 10월 2.5%, 11월 2.4%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이 계속되었고, 2005년 3/4분기 들어 유로지역의 경기회복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ECB의 소폭의 금리인상 단행은 예상되었던 일임.
- 그러나 ECB는 유로지역의 경기진작을 위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당분간 유로지역의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 ECB의 금리인상 조치로 유로지역의 기준금리가 소폭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미국과 금리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금리격차는 달러화대비

유로화 가치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편, 유로지역의 저금리 기조는 기업의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많은 유로지역 국가들이 긴축재정정책의 압박을 받고 있어 재정지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독일, 프랑스 및 이탈리아 등은 지난 몇 년간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여 EU의 안정성장협약(SGP)¹²⁾의 재정준칙을 위반해 왔음.
 - 2005년 3월 SGP의 재정준칙이 다소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지만, 지속적으로 동 준칙을 위반해 왔던 국가들이 내수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줄 만한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독일의 사민-기민·기사연합의 대연정도 재정적자 축소를 차기 정부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EU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의 정부지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또한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제개혁정책은 소비자와 기업의 미래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연금, 건강보험 등의 복지제도 및 노동시장 개혁정책은 복지혜택 축소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바,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조로 당분간 민간소비지출의 확대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EU 헌법 부결과 동 헌법에 대한 영국의 국민투표 연기 등으로 EU 통합과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EU 예산안에 대한 합의도출도 실패함으로써 회원국간 갈등과 EU 통합 전망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의 소요사태로 사회적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음.

12) 안정성장협약(SGP; Stability and Growth Pact)은 회원국들의 건전한 재정균형과 낮은 공공부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준칙(fiscal rule)으로, 경제통화동맹(EMU) 참가국으로 하여금 매년 재정수립조건(재정적자를 경상 GDP의 3% 이내로 유지하고, 정부부채 잔액이 경상 GDP의 60% 이하가 되어야 함)을 충족시키도록 강제하고 있음.

- 2005년 6월 16~17일 양일간 개최된 EU 정상회의에서 2007~2013년의 EU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2005년내에 확정되지 못하고 2006년에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o EU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는 영국에 대해 EU 분담금 환급 혜택 포기를 촉구한 반면, 영국은 EU 농업 보조금의 주요 수혜국인 프랑스에 대해 동 보조금 정책의 개편 없이는 분담금 환급을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음.¹³⁾
- 무슬림 등 이민자에 대한 차별 등으로 촉발된 프랑스의 소요사태는 유럽 사회통합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한편, 유럽사회의 안정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음.

- 2005년 9월 18일 EU의 최대 경제국인 독일 총선에서 여당인 사민당(SPD)과 야당인 기민·기사연합(CDU·CSU) 모두 확실한 승리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사민-기민·기사연합의 대연정이 출범되었음.
 - 집권 연정 및 보수 야당 연합이 모두 과반수 획득에 실패함에 따라 한 때 연정 협상을 둘러싼 정국 혼란이 계속되었음.
 - 그러나 2005년 10월 10일 사민당(좌파)과 기민·기사연합(우파)은 기민당 당수인 메르켈을 차기 총리로 한 대연정 구성에 합의하였고, 11월 12일에는 양당이 정책합의에 도달하였으며, 11월 22일에는 메르켈을 하원에서 독일 총리로 선출하였음.
 -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불안정성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된 개혁정책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임.

다. 2006년 성장 전망

- 2006년 EU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반등에 힘입어 회복

13) 영국은 대처 총리 시절 경제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후 매년 45억 유로의 EU 분담금 환급 혜택을 받아왔으나 다른 회원국들이 동 규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에서 살펴본 많은 정치·경제적 불안요소로 인해 성장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 고실업, 복지축소 등의 경제개혁 정책 추진으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으로 민간소비지출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정부재정악화 및 SGP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정부지출 확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최근 주식시장의 활황 및 저금리 기조 지속 등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호조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고유가와 유로화 강세, 정치사회적 불안요인 확대에 따른 사업전망의 불확실성 증가로 기업의 투자확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05년과 2006년 세계경기는 비교적 안정되고 견실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4년에 비해서는 그 성장세가 약한 만큼, 세계경제 성장에 따른 EU의 수출확대도 2004년에 비해서는 다소 한계가 있을 것임.

□ 그러나 2006년 EU 경제는 경기가 위축되었던 2005년보다는 기업투자 확대 및 수출증가로 인해 경기가 다소 호전될 것임.

- 유럽중앙은행의 저금리 정책기조 지속 및 유로지역의 임금인상 억제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세계경기회복과 더불어 해외주문이 증가하면서 투자확대, 수출증가 등과 같은 성장요인이 다소 강화될 것이기 때문임.

□ 따라서 2004년에 2.4%였던 EU-25 경제성장률은 2005년에 1.5~1.6%로 다소 위축된 후, 2006년에는 다시 2.0~2.1% 성장하며 회복될 것으로 예상됨.¹⁴⁾

- 국가별로 보면, 2006년 독일경제는 1.2~1.4%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수출증가와 설비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자금사정 호

14) 한편, 유로지역 경제는 2005년에 EU-25보다 다소 낮은 1.2~1.4%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며, 2006년에는 약 1.8~1.9%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전에 따른 독일기업들의 투자확대는 내수증가에 기여할 것임. 그러나 고유가 및 독일 기업들의 임금인상 억제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로 민간 소비는 저조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는 2006년에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역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억제 및 노동시장 회복지연 등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내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탈리아 경제는 전반적인 유로지역 경제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확대되고 노동시장 개선과 더불어 내수도 확대되면서 2006년에 1.4~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표 2-12. 예측기관별 EU 및 유로지역 경제성장률 전망

(단위: %)

예측기관	IMF		EU 집행위원회		Global Insight	
	2005	2006	2005	2006	2005	2006
연 도						
EU - 25	-	-	1.5	2.1	1.6	2.0
유로지역	1.2	1.8	1.3	1.9	1.4	1.8
독 일	0.8	1.2	0.8	1.2	1.0	1.4
프 랑 스	1.5	1.8	1.5	1.8	1.5	1.8
이탈리아	-	1.4	0.2	1.5	0.2	1.0
네덜란드	0.7	2.0	0.5	2.0	0.8	2.2
스 페 인	3.2	3.0	3.4	3.2	3.3	2.8
영 국	1.9	2.2	1.6	2.3	1.6	2.2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September 2005.

European Commission, *Economic Forecasts*, Autumn 2005.

Global Insight, *Online Analysis*, November 2005.

- 전체 경제에서 수출부문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는 그 동안 유로화 강세 및 고유가 그리고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이 위축되고,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노력 및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가처분 소득의 감소에 따른 내수부진 등으로 경기가 위축되었음. 그러나 2006년에는 세계경기 호조 및 기업들의 생산성 제고 등으로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유로지역 회원국 가운데 높은 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스페인의 성장세는 2006년에도 계속되어 약 2.8~3.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영국은 제조업과 수출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부문과 내수가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며, 약 2.2~2.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5. 중남미

가. 최근 동향

- 2005년 중남미 경제는 1980년 이래 최고의 성장(5.9%)을 달성했던 지난 해보다는 성장세가 주춤할 전망이나 지속적인 수출증대 및 민간소비 확대에 힘입어 4%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
 -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05년 중남미 경제성장은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세에 편승한 원유, 동, 철강, 곡물 등 1차 산품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추동됨.
 - 대내적으로 중남미 경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강도 높게 추진되어 온 경제개혁의 성과에 따른 경제체질 개선에다 소득 증가에 힘입은 민간소비 확대를 통해서도 견인됨.
 - 지역별로는 멕시코와 중미·카리브지역 국가들이 중남미지역 평균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3%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데 반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을 위시한 남미국가들은 5~6%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2000년부터 시작된 미국경제 침체에 동반되어 어려움을 겪던 멕시코 경제는 환율, 금리 등 안정적인 거시 경제적 상황, 미국경제 회복 효과로 인한 수출증가, 고유가에 바탕을 둔 재정지출 확대, 해외동포 송금 증가에 기초한 내수회복, 그리고 외국인투자 증가 등을 바탕으로 2004년에 4.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2005년에는 미국경제 성장세 둔화 전망 요인이 완화되고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제금리 인상, 2006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의 불확실성 제고 등으로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어 정부목표치인 3.8%에 미치지 못하는 3.3%에 그칠 전망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대외채무 규모는 다소 과중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양호한 신인도를 유지하고 있고 수출 증가 및 FDI 유입 지속 등으로 외환보유고도 증가추세에 있어 과거 정권교체기에 발생했던 경제위기의 재발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멕시코와 더불어 중미지역(파나마 포함 6개국)은 최근 중남미지역 경제성장률에 미치지 못한 저조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교역 등 경제전반에 걸쳐 의존성이 높은 미국경제의 변동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임.

- 미국경제에 동반 침체를 보이던 중미지역은 2004년에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3.8%의 성장률을 달성했음.
- 그러나 2005년 들어서는 美-중미자유무역협정(CAFTA-DR) 협상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 국제금리 인상, 그리고 세계 섬유 및 의류교역 경쟁 격화 등의 대외경제환경 악화와 수입물가 상승과 경기회복기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각국 중앙은행의 긴축정책이 실시되면서 3.5% 수준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 한편,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가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지만, 관광서비스업의 활성화와 해외동포 본국송금 증가 및 외국인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극복할 것으로 기대됨.

□ 광물자원 부국인 안데스지역은 석유 및 광산물 수출 증가와 베네수엘라 경제의 높은 성장세에 힘입어 중남미지역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5%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

- 중남미 유일의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지속적인 원유 수출확대에

안데스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7%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콜롬비아와 페루 경제도 미국의 무역특혜법(ATPDEA) 효과에 힘입은 對美 수출증가에다 농산물, 광산물 등 1차산품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평균 4%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감.

□ 남미지역 경제는 브라질과 파라과이 경제의 성장둔화로 2004년보다는 다소 낮은 6%대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는 급격한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2005년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세가 둔화되고, 지난해 물가인상 억제를 위해 실시한 수차례의 금리인상 효과로 소비 및 투자가 냉각되면서 성장세가 주춤함. 이에 따라 2005년 브라질 경제성장은 지난해 4.9%보다 낮은 3%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 지난 2년간 8%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해왔던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성장세는 2005년에 6~7%대로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그간 기술적 반등과 수출 증가에 의존해왔던 성장 동력이 힘을 상실한데다 구조개혁 지연, 외국계 투자기업과의 통상 분쟁 등이 아르헨티나 경제의 고속성장예제동을 걸 것으로 보임.
- 칠레 경제는 銅을 위시한 1차산품의 수출증대에다 국내 설비투자 확대에 힘입어 6%대 성장을 기록, 중남미 국가 중 가장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감.

나. 주요 이슈

1) 대외 변수

-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의 세계경제 편입이 가속화되면서 대외적으로 세계경제의 양대 성장엔진인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경제전망은 중남미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동함.
- 사실 최근 중남미 경제는 세계경제의 호황에 따른 전 세계적인 원자재 난에 편승해 세계경제의 천연자원 공급기지로서 이점을 톡톡히 누려왔음.

- 따라서 2006년 미국 및 중국 등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성장 둔화 전망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주종 수출품인 1차산품의 수출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그간 수출 증대에 힘입어 추동되어왔던 중남미 경제성장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지난 2년(2004~05년)간 연평균 21%의 높은 성장세를 지속해오던 수출은 2006년에 그 성장세가 한자리수대(6%)로 하락할 전망이다.

2) 대내 변수

- 대내적으로 2006년 중남미 경제의 전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큰 변수중의 하나는 중남미 주요국에서 연이어 치러질 대통령 선거임. 전통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정치적 혼란이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곤 했음.
- 2006년 2월 코스타리카에서 대통령 선거를 시발로 페루, 콜롬비아, 멕시코, 니카라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주요국에서 대통령 및 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임.
- 그러나 최근 중남미 각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고 기초경제여건이 크게 개선되어 과거와 같은 커다란 정치·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제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희박할 전망이다.

표 2-13. 2006년 중남미 각국의 주요 선거일정

국가	선거형태	일자
코스타리카	대통령/의원 선거	2월 6일
페루	대통령/의원 선거	4월 9일
콜롬비아	대통령/의원 선거	4월
멕시코	대통령/의원 선거	7월 2일
니카라과	대통령/의원 선거	11월
브라질	대통령/의원 선거	11월
베네수엘라	대통령선거	연말

자료: www. ElectionGuide.org - 2006 Election Calender.

- 또한 대내적으로 중남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수는 현재 중남미 각국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의 결과임.
 - 우선적으로 2006년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중미간 FTA (CAFTA-DR)는 중미 국가들의 대미 수출을 촉진시켜 그간 경제성장 둔화에 시달리고 있는 중미 경제에 새로운 활력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 2005년 타결되어 2006년 발효될 칠레와 중국간 FTA도 칠레의 對中 수출 확대에 커다란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 한편 미국과 안데스 3국(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간 FTA 협상은 당초 목표인 2005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이나 2006년 중에는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 안데스 국가들의 대미 수출 전망을 밝게 함.
 - 그러나 당초 협상 시한을 넘긴 매머드급 경제통합체인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와 MERCOSUR-EU간 FTA 협상은 2005년 12월 WTO 통상장관회담에서 농업보조금 등 주요 협상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한 상당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따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미공동시장(MERCOSUR) 국가들에서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를 당분간 기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다. 2006년 경제성장 전망

- 2006년 중남미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 둔화, 중남미 주요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정치·사회적 불안정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2005년 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된 3%대 후반의 성장에 멈출 전망이다.
 - 특히 일부 중남미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의 남발로 재정지출 확대에 따른 물가인상 재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수출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이로 인한 경상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로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안데스지역을 포함한 남미지역 경제가 2006년 중남미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 2006년 멕시코 경제는 대통령선거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인 긴축기조가 유지되고 쌍둥이 적자에 시달리는 미국경제가 주요 대외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2005년과 유사한 3.2%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선거의 불확실성은 민간소비 및 투자를 위축 혹은 지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외환시장 불안을 증대시켜 교역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특히 2005년 11월 들어 이미 선거정국이 시작되어 제도혁명당(PRI) 또는 민중혁명당(PRD)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운데 폭스(Vicente Fox) 정부의 조세, 노동시장, 에너지산업 등에서의 개혁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되고 있는 한편으로, 정부정책이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는 데 집중되고 있어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임.
 - 한편, 멕시코는 최대 수출시장인 북미는 물론 내수시장에서조차 중국산 저가제품들과 경쟁하고 FDI 유치에서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데, 2006년 북미 수출시장의 경기 외에 경쟁국들과의 시장쟁탈전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 중미지역의 경기부진은 2006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2005년 경기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요인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 세계경제 및 교역성장률 둔화와 고유가 지속 등으로 중미지역의 2006년 성장률은 2005년보다도 낮은 3.3%에 그칠 전망이다.
 - 국가별 성장률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파나마와 과테말라처럼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성장률이 4%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에 엘살바도르와 코스타리카 등은 2%대에 그칠 전망이다.
 - 특히 2005년 11월 온두라스를 비롯하여 2006년 2월과 11월에 각각 예정된 코스타리카와 니카라과의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07년 선거를 앞둔 과테말라에서의 레임덕 현상 등은 부진한 경기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 출범할 CAFTA-DR은 중미지역의 투자여건 개선과 대미시장 수출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다소나마 경기부진을 만회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표 2-14. 중남미 국별 경제전망

(단위: %)

국가		2004	2005	2006
멕시코 및 중미	멕시코	4.4	3.6	3.5
	코스타리카	4.2	3.0	3.0
	엘살바도르	1.5	2.5	2.5
	과테말라	2.7	3.0	3.0
	온두라스	5.0	4.5	4.0
	니카라과	5.1	4.0	4.0
	파나마	6.2	4.5	4.0
	멕시코 및 중미	4.3	3.6	3.5
카리브	쿠바	3.0	5.0	-
	아이티	-3.8	2.0	-
	도미니카공화국	2.0	3.5	4.0
	카리브	3.9	4.0	4.0
안데스	볼리비아	3.6	3.5	4.0
	콜롬비아	4.1	4.0	4.0
	에콰도르	6.9	3.0	3.0
	페루	4.8	5.5	4.5
	베네수엘라	17.9	7.0	4.5
	안데스	9.5	5.4	4.2
남미	칠레	6.1	6.0	5.5
	아르헨티나	9.0	7.3	4.5
	브라질	4.9	3.0	3.5
	파라과이	4.0	3.0	3.0
	우루과이	12.3	6.0	4.0
	남미	8.4	6.9	4.7
중남미 전체		5.9	4.3	3.8

자료: 유엔중남미경제위원회(CEPAL), Estudio Economico de America Latina y el Caribe 2004-2005, Agosto de 2005.

- 안데스지역은 대외경제 환경 악화에 따른 1차산품의 수출 감소에다 그간 이 지역의 경제성장을 견인해온 베네수엘라 경제의 고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2005년보다 다소 낮은 4%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그동안 경제위기 이후 기술적 반등에다 고유가에 힘입어 고성장세를 구가해오던 베네수엘라 경제는 2006년 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혼란 등의 영향으로 2005년보다는 낮은 4%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콜롬비아와 페루 경제도 2006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정치적 혼란이 예상되긴 하나 국내 소비 및 투자증가에 힘입어 4%대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남미지역은 주종 수출품인 1차산품의 수출둔화에다 그간 경제성장을 주도해온 아르헨티나 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함에 따라 2005년보다는 다소 낮은 4%대 경제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브라질 경제는 대외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인하 효과에 힘입어 소비 및 투자가 증가하면서 2005년보다는 다소 높은 3%대 후반의 안정적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 아르헨티나 경제는 수출 증가세 둔화에다 지난해 중간 선거를 겨냥한 수요 진작 정책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지난 3년간 이어온 고성장세를 마감하고 4%대의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칠레 경제는 중국과 FTA 체결 등 경제통합 효과에 힘입은 수출증가에다 지속적인 설비투자 확대를 기반으로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높은 5%대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6. 러시아

가. 최근 동향

표 2-15. 러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분	2002	2003	2004	200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실질GDP 증가율(%)	4.7	7.3	7.1	5.2			6.1			-	-	-
공업생산 증가율(%)	3.7	7.0	7.3	2.1	5.1	4.0	5.0	1.4	6.9	4.9	3.4	5.2
인플레이션(%)	15.1	12.0	11.7	12.7	12.8	13.5	13.7	13.9	13.3	13.2	12.6	12.4
명목환율 (루블/달러)	31.8	29.5	27.8	28.0	27.9	27.6	27.8	27.9	28.7	28.7	28.5	28.5
외환보유액 1/ (십억 달러)	47.8	76.9	124.5	124.9	134.2	137.4	144.3	147.4	151.6	144.6	149.7	159.6
경상수지 (십억 달러)	32.8	35.9	60.1	22.4			24.0			22.7		
수출 (십억 달러)	107.3	135.9	182.0	13.8	16.2	20.1	20.2	20.4	19.8	21.5	22.0	23.0
수입 (십억 달러)	61.0	75.4	94.8	4.7	6.3	13.5	9.7	9.7	9.6	10.1	10.5	10.5

주: 1/ 2005년은 월별 누적치

자료: World Bank, Central Bank of Russia, Federal State Statistic Service

□ 러시아 경제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6.7%의 높은 성장률 유지해왔으며, 주된 성장 동력은 대외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의 수출호조, 대내적으로는 국내 수요의 높은 증가임.

- 최근 높은 성장의 가장 주된 요인은 국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이며, 이의 대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4년 수입은 전년대비 25% 증가하였으며, 2004년 국내수요 증가분의 64%는 수입 증가가 차지하고 있어 이는 국내 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더욱 악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05년에 들어서면서 1분기 GDP 증가율이 5.2%를 기록하는 등 경기침체의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비교역부문의 높은 성장과 제조업의 성장세 회복에 기인함.
 - 천연자원추출, 전력, 가스 등 러시아의 전통적인 주력 수출산업은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는 반면¹⁵⁾, 국내 수요의 증가에 힘입은 건설, 교통 및 통신, 도소매, 숙박업 등이 높은 부가가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제조업은 2005년 1분기에 대달러 환율의 급격한 절상으로 침체했다가, 2분기에 2.8%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러시아의 2005년 1~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8.6%를 기록하여, 이미 정부의 2005년 목표치(8.5%)를 초과하였음.
 - 이는 연금법 개정 등 사회보장을 위한 정부지출 증가, 에너지자원 수출 호황으로 인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임금 및 원자재 등 생산요소의 가격 인상, 주택 및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과 국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 기인함.
 - 최근 러시아 정부는 2005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3.7%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음.
 - 특히, 2005년 1~9월의 생산자물가는 동기간 53.1%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인 에너지 가격으로 인해 15.7%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에너지자원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외환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9월까지의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한 약 930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경상수지도 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한 691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15) 2005년 1~9월까지의 천연자원추출산업의 생산은 에너지자원(석유, 가스 등)의 경우 1.7%의 증가에 그쳤으며, 비에너지자원(금속 등)은 -3.2%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 2005년 9월까지의 외환보유액은 1,596억 달러로, 막대한 규모의 외채 상환에도 불구하고 2005년에 들어와서만 351억 달러가 증가함.
- 2005년에 러시아는 IMF, 파리클럽 등에 약 190억의 외채를 상환한 바 있음.

□ 러시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규모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음.

- 2005년 9월까지 러시아에 유입된 FDI는 142억 달러로, 전년 동기간에 유입된 117억 달러를 훨씬 상회함.
-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체로 유코스(Yukos) 사태에 따른 투자불안 심리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경제개혁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나. 주요 이슈

1) 경제성장률 가속화 조치 채택

□ 2005년 10월 러시아 정부는 경제성장률 가속화를 위한 ‘프라드코프 총리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향후 10년간 GDP 2배 증대와 빈곤수준 감소를 위해 경제성장률 가속화 조치를 채택하여 실행하고 있음.
- 이러한 조치의 골자는 조세부담 감소, 혁신산업 개발, 운송인프라 개발, 은행부문 발전, 국가의 수출지원, 부동산시장 발전, 지역 생산 클러스터 구축, 행정개혁 등임.
-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실현되면 2008년까지 GDP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1.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봄.

2) WTO 가입과 세계경제로의 편입

- 러시아 정부는 2000년 푸틴 행정부 집권 이후 1998년 금융위기로 인해 상당기간 지연된 WTO 가입을 재추진해 왔으며, 2005년에 양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2006년 공식 가입예정임.
 - 2004년 5월 러시아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파트너인 EU가 러시아의 WTO 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러시아의 WTO 가입이 가시화되고 있음.
- 현재 러시아 WTO 가입의 주요 쟁점은 상품 및 서비스 시장접근의 확대, 에너지 이중가격제도 폐지 및 지적소유권 보호와 금융서비스 거래규제 완화 등임.
 - 러시아는 다양한 수입관세 및 수출세 제도와 수입면허제도를 통해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보호하고 있으며, WTO 가입 후 5~7년의 과도기간을 거쳐 현행 WTO 수입세율에 근접시킨다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음.
 -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금융 및 서비스 시장 개방을 기대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대외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매우 취약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엄격한 집행이 필요한 실정임.

3) 네덜란드병 징후와 거시경제 안정화

- 최근 러시아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막대한 석유수입이 실질환율의 절상과 에너지부문을 제외한 기타 산업부문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수출의존형 경제구조¹⁶⁾에 기인하며, 2004년 석유 및 에너지자원의 수출 비중은 56.8%를 기록했음.

16)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자원주도형 경제는 GDP의 10%, 총수출의 40% 이상을 에너지자원 수출이 차지하는 경우를 일컫음.

- 국내 제조업은 실질환율의 절상으로 인해 생산원가가 높아져 수입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어, 러시아 국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이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이러한 네덜란드병 징후를 제거하고 거시경제 안정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지나친 소비과열과 오일달러의 과다 유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대달러 루블화 환율 추가 절상을 막기 위해 안정화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대외부채의 탕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러시아 중앙은행은 막대한 외화의 유입으로 인한 대달러 루블화 환율의 절상압력 제거를 위해 달러를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음.
 - 2005년 11월 기준 러시아의 외환보유액은 1,643억 달러이며, 연말에는 1,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다. 2006년 성장 전망

- 2005년 8월 러시아 경제개발통상부는 두 가지 시나리오(시나리오 I, II)에 입각한 시뮬레이션¹⁷⁾을 통해 2006년 러시아 사회경제발전을 전망함.¹⁸⁾
 - 시나리오 I은 러시아 경제의 국제경쟁력 약화 지속과 투자환경 개선의 부진 등으로 인한 '관성적 발전(Inertial Development)'을, 시나리오 II는 해외시장의 호황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 경제구조 및 제도의 개혁, 고정자산투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주요 산업부문의 점진적 발전을 가정함.

17) 시뮬레이션 내생변수인 외부조건은 주요 수출품목인 러시아 원유의 기준 유가인 우랄유가, 원유·가스 생산 및 수출, 세계 경제성장률 등임(표 참조).

18) 러시아경제개발통상부. 2005년 8월. *Scenarios of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nd Major Values of the Summary Financial Statement of Balances of the Russian Federation for the Year 2006 and for the Period till 2008*

표 2-16. 2006년 러시아 사회경제발전 전망 시뮬레이션의 내생변수

	시나리오	2004년	2005년 추정	2006년 전망
우랄유가(USD/barrel)	I	34.4	48	28
	II			40
원유 생산(백만 톤)	I	458.7	470	480
	II			487
가스 생산(십억 입방미터)	I	632	640	646
	II			649
원유 수출(백만 톤)	I	257.6	263	272
	II			268.6
가스 수출(십억 입방미터)	I	200.4	203	204
	II			208
세계 경제성장률(%)	I, II	5.1	4.3	4.4
환율(유로/달러)	I, II	1.24	1.25	1.23

자료: The 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 September 2005. Russian Economy: Trends and Perspectives

표 2-17. 2006년 러시아 사회발전전망 시뮬레이션 결과(시나리오 II)

	2005년 추정	2006년 전망
우랄유가(USD/barrel)	48	40
실질GDP증가율(%)	5.9	5.8
인플레이션(CPI, %)	11.0	8.5
수출(십억 달러)	245.8	232.4
수입(십억 달러)	120.3	139.0
환율(명목, Ruble/USD)	28.5	28.7
고정자산투자증가율(%)	9.8	11.1

자료: The 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 September 2005. Russian Economy: Trends and Perspectives

- 최근 국제적인 고유가의 기조와 러시아 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감안할 때 시나리오 II가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전망되며, 러시아 정부는 시나리오 II를 2006년 연방예산안 초안에 반영하였음.
- 2006년 러시아 경제는 실질 GDP 증가율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회복세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 수요구조에서 수입 의존성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러시아의 실질 GDP 증가율은 2005년 추정치 5.9%에 비해 소폭 하락한 5.8%를 기록할 전망이다.
 - 이는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¹⁹⁾ 1998년 금융위기에 따른 루블화 평가 절하의 이점이 거의 사라졌으며, 투자 부족으로 인해 일부 부문에서 생산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수입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 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대신 국내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국내 수요구조의 수입의존성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임.
 - 2002년 국내 수요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7.6%로 최고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2006년에는 수입이 38.9%로 줄어드는 대신 국내 생산이 61.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²⁰⁾
- 러시아 거시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환율의 절상압력과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거시경제의 불안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루블화의 대달러 환율은 28.7 루블로 약간 절하될 수 있지만,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5년 추정 대달러 루블화 환율인 28.5 루블을 구매력 평가기준(PPP)으

19) 수출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2004년 13.1%에서 2008년 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 러시아경제개발통상부. 2005년 2월. On Results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2004 and Objectives of the Russian Federation Economic Policy for 2005; The 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 September 2005. *Russian Economy: Trends and Perspectives*.

- 로 환산하면 20.5 루블로, 향후 추가적인 절상의 가능성이 상존함.²¹⁾
- 이러한 러시아 루블화의 고평가와 국내 수요의 증가, 비교역부문의 높은 성장세와 교역부문의 침체 등으로 인해 러시아의 '네덜란드병' 징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인플레이션은 8.5%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보이나, 일각에서는 시물레이션이 자연독점부문 가격과 총통화증가율의 증가추세를 간과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10%선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²²⁾

7. 인도

가.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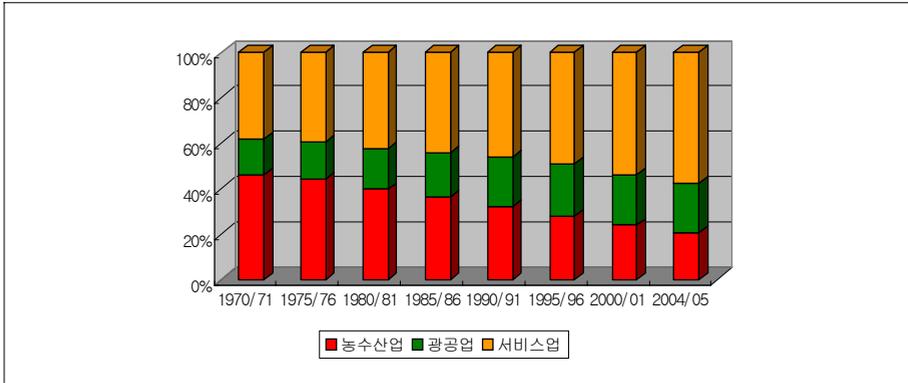
- 인도 경제는 2004/05 회계연도(2004년 4월 1일~2005년 3월 30일. 이하 2004년도) 4/4분기(2005년 1월~3월) 기간 중 7%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04년도 6.9% 성장이라는 당초 정부의 예상치를 무난히 달성하였음.
 - 2004년도 인도 인구의 2/3가 종사하며 총 생산의 23%를 차지하는 농업생산이 1.1% 증가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9.2%) 및 서비스 분야(7.1%) 성장으로 거시경제 토대의 건실성을 입증하였음.
- 인도 경제는 2005년도 전반기 8%대의 강한 성장세가 하반기에는 다소 완화될 것이나, 여전히 빠른 성장을 계속 할 것임.
 - 인도는 2004년 12월 쓰나미 피해와 2005년 10월 카슈미르 지방의 지진에도 불구하고 산업 전반의 호조로 2005년도 7.4%의 고성장이 확실시되고 있음.
 - 농업은 작년도 가뭄에 따른 작황 불황에 이은 주기적인 반동을 경험할

21) Institute for Economies in Transition, Bank of Finland. August-September 2005. *BOFIT Russia Review*. 8-9/2005

22) Institute for the Economy in Transition. September 2005. *Russian Economy: Trends and Perspectives*

것이며,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생산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림 2-1. 인도의 산업구조 변화(1970/71~2004/05)



자료: Reserve Bank of India. Handbook of Statistics on Indian Economy. September 2005. India.

- 한편 2004년도 인도는 농업생산이 1.1%로 저조한 증가율을 보였음에도 7%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임으로써, 인도 경제에서 농가소득과 산업생산과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최근 1970년 46.3%에 달했던 과도한 농업부문 의존도가 23%로 줄어드는 한편 제조업(25%)과 서비스업(52%)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인도는 근본적인 산업구조 재편을 경험하고 있음.
 - 이처럼 인도 경제에서 농가소득과 산업생산과의 연관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산업별 비중의 변화 외에도 인도 경제에서 중산층의 비중 확대, 수출의 GDP 기여도 증가, 노동생산성 증가, 에너지 효율성 증가 및 농촌에서 신용대출 이용의 용이 등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외에도 지난 30년내 최저 수준인 금리 및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개선과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재 투자 등도 산업생산 증가에 주요하게 작용함.

표 2-18. 인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단 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인 구	백만 명	996	1,012	1,030	1,046	1,062	1,080
경상 GDP	억 달러	4,516	4,773	4,855	5,076	5,477	6,915
1인당 경상GDP	달러	459	478	473	485	516	610
실질 GDP증가율	%	7.2	4.4	5.8	4.0	8.5	6.9
소비자물가상승률1)	%	3.4	3.8	3.7	4.1	3.5	4.2
재정적자(GDP비중)	%	△4.2	△5.5	△5.1	△5.4	△4.6	△4.2
경 상 수 지	억 달러	△47	△27	34	63	106	△64
무 역 수 지	억 달러	△116	△125	△116	△107	△155	△278
수 출	억 달러	383	455	447	538	647	792
수 입	억 달러	499	579	563	645	802	1,071
외환보유고2)	억 달러	351	396	510	719	1,130	1,415
환 율(연평균)	루피/달러	43.1	45.7	47.7	48.4	46.0	45.3

주 :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이고, 주요지표의 연도는 회계연도 기준.

1) 공업노동자 연평균 물가(1982=100), 2) 금과 SDR 포함, 기간 말 기준.

자료: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Economic Survey, 각년호.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Finance, Monthly Economic Report, September 2005.

Reserve Bank of India, Annual Report, 각년호.

나. 주요 이슈

- 인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5% 내외이나, 26개 州정부의 재정적자를 합한 통합재정적자는 무려 GDP의 10%이며, 공공부채도 80%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는 인도 경제의 구조적 문제임.
 - 이에 더하여 사회기간시설 구축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과 8월 의회를 통과한 고용보장법 시행, 고유가에 따른 유가보조 부담 증가 등으로 재정 지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
 - 한편 국영기업 민영화 중단, 관세인하 및 법인세 축소 등으로 재원은 더

육 축소된 상황

- 무역적자폭이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IT 등 서비스수지와 재외 인도인들의 본국송금(해외이전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에 의존하던 경상수지도 악화되고 있음.
 -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던 인도의 경상수지는 2001년도 34억 달러의 흑자 전환 이후 2002년도 63억 달러에 이어 2003년도에는 10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4년도 총수입의 27%를 차지하는 석유 및 석유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산업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규모 확대 등으로 무역수지는 278억 달러, 경상수지는 6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
 - 2005년 1/4분기(4월~6월)에는 무역적자가 115억 달러(연률환산 GDP의 7.8%)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으며, 미국의 금리인상, 달러약세 둔화 등으로 자본유입이 축소됨에 따라, 동 분기에만 경상수지 적자가 62억 달러에 달했음.
- 인도 경제가 최근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유가 시대 에너지안보를 확보하는 한편 인플레이 억제에도 힘써야 함.
 - 원유소비의 60~70%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 억제와 함께 향후 경제발전에 따른 에너지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정책 수립이 중요한 과제임.
 - 2004년도 소비자물가가 전년대비 4.2%로 최고의 상승률을 보여, 2004년 중반 이후 정부가 유가 통제와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플레이를 억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인플레이 압력과 빠른 비식량(nonfood) credit 성장세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도 필요함.
- 무엇보다도 인도 정부가 목표하는 대로 7~8%대의 고성장을 이룩하는 동시에 공정한 부의 분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2004년 5월 총선에서 제1야당인 국민회의당이 좌파를 비롯한 소수정당들과 연합한 UPA 정부가 출범하였으나, 좌파연합이 개혁적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제동을 걸어, 인도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속도는 다소 늦어지고 있음.
 - o 좌파연합은 2005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익성 있는 공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확대 및 노동개혁을 저지하는 한편 재정적으로 무리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추진을 관철시켰음.
- 지지기반이 견고하지 못한 현 정부는 좌파연합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하나, 이로 인해 시장개혁이 지연되고 경제발전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인도 정부는 인프라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증대, 생산시장의 제도적 규제 철폐, 연금 개혁 등으로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음.

- 인도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제구조로, 1, 2차 산업에 비해 3차산업이 과다 팽창되어 있어, 산업간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제조업도 최근 석탄, 발전, 시멘트산업 등을 중심으로 안정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 인도 정부도 제조업 육성전략(National Strategy for Manufacturing) 수립, IT산업과의 연계 도모 등 제조업 발달을 위한 여건 조성에 나섬.

□ 한편 최근 인도의 높은 경제 성장, 정부 및 민간의 대규모 투자 전망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대량의 유동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사상최고치를 경신하는 중이나, 가계부채 증가와 그간의 소비붐이 꺼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시하여 금융시장 혼란에 대비해야 함.

다. 2006년 성장 전망

□ 인도 경제의 빠른 성장은 2006년에도 계속될 전망

- 여태까지 인도 경제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였던 농업생산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건실한 경제여건을 토대로 인도의 장기적인 경제전망은 안정적인.
- 인도는 고유가, 산업 및 소비심리 회복에 따른 국내수요 증가 등으로 무역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지만, 활발한 서비스 수출과 송금이 경상수지 적자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빠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비롯한 각종 산업의 생산도 강세를 유지할 전망임에 따라 2006년도 6.9%, 2007년도에도 6.4%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

□ 2006년도 인도 경제는 유가인상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와 인플레이 압력, 해외자본유입 축소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폭 심화, 가계부채 확대와 금리인상에 따른 소비심리 동결 등의 불안요인을 안고 있으나, 거시적인 기초가 견실하여 성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표 2-19. 인도의 향후 경제전망

	2005/06		2006/07		2007/08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EIU	Global Insight
실질 GDP 성장률(%)	7.3	6.6	6.8	6.4	6.4	6.2
소비자물가상승률(%)	4.4	4.6	4.5	5.3	3.1	5.2
경상수지(십억 달러)	-12.5 (GDP대비 -1.6%)	GDP대비 -0.7%	-20.2 (GDP대비 -2.3%)	GDP대비 -0.8%	-22.0 (GDP대비 -2.0%)	GDP대비 -1.2%
환율(연평균, 루피/달러)	43.6	43.39	43.0	42.95	42.5	44.06

자료: EIU, 5-year forecast; India, September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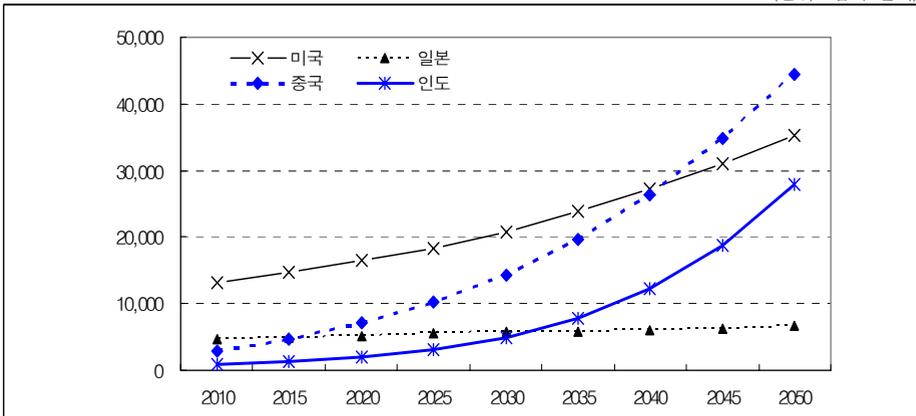
Global Insight, Asia and Oceania Monthly Outlook, August 2005.

□ 인도는 현재 중국 다음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고도의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중국의 성장률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이는 생산성 향상, 에너지효율 상승 등으로 경제 전반의 효율성이 증대함에 따라 인도 경제가 안정적 성장궤도에 진입했기 때문임.
- 인도에서의 경제개혁도 완만한 속도로 꾸준히 진행됨으로써 경제성장의 안정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o 이미 경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치 필요성에 국가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어 기업친화적인 정책과 시장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보이며, 급증하는 중산층 및 민간기업들의 압력도 개혁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임.

그림 2-2. 주요 4개국의 GDP 성장 전망

(단위: 십억 달러)



자료: Goldman Sachs. 2004. Dreaming with BRICs

- 인도 정부가 경제개혁을 꾸준히 시행하고 인프라 구축과 에너지자원 확보 등으로 경쟁력을 높인다면 중국에 버금가는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지로서 위상을 더욱 높이게 될 것임.
 - 국제적으로 인도는 주변국과 FTA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의 정치·경제·군사적 동맹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독해지고 있음.
 - 그 밖에 최근의 쓰나미,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인도 경제에 미칠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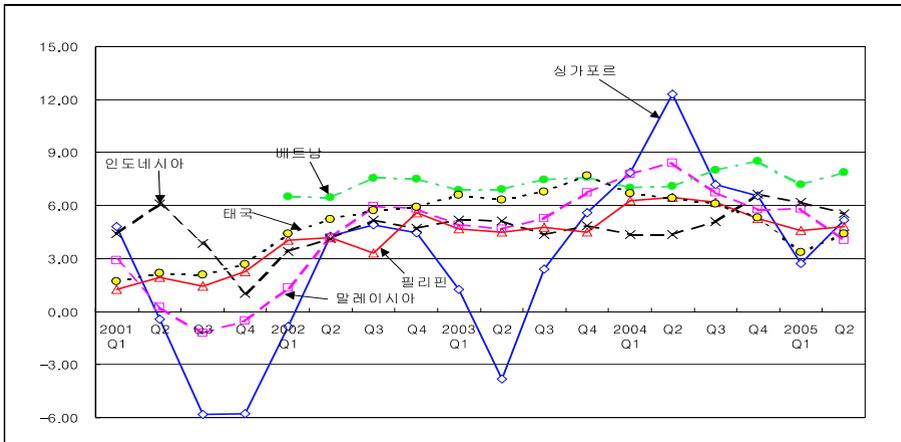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직까지 무역비중이 낮아 해외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도 크지 않아, 중장기적인 위험도가 낮은 편임.

8. 동남아

가. 최근 동향

- 2005년 상반기 동남아 국가들은 대체로 수출 부진 및 고유가로 인한 내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04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 가뭄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됨.
 - 그리고 세계적인 IT 경기 부진 및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전자제품 수출이 부진을 보이고 있는데다 중국의 수입 둔화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2004년에 비해 낮아졌기 때문임.

그림 2-3. 동남아 주요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추이
(2001. 1/4~2005. 2/4)



자료: ADB.

- 2005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기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해외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심화로 민간소비 증가세도 축소되면서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2004년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일부 국가에서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재정부담이 확대되며, 조류독감 (Avian Influenza)의 역내 확산 및 인간 전염 가능성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2차례에 걸친 연료가격 인상, 루피아화 약세, 외환보유고 축소, 금리 인상, 정부 소비의 4분기 연속 감소 등으로 2005년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됨.
 - 특히 고유가 지속에 따른 재정 악화와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10월, 17.9% 상승)은 경제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또 저소득층 지원과 성장의 반발, 정부 개혁정책의 불확실성 및 불투명성 등도 나타남.
 - 반면,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따른 정치적 안정, 정부의 법제 개혁 추진 등으로 인한 투자환경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직접투자가 확대되고 민간 소비와 대외무역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 경제 역시 원유 수출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출의 소폭 확대, 고정투자 및 민간자본지출의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의 둔화(1/4분기 10.0%→2/4분기 7.4%), 정부 소비의 감소 등으로 인해 2005년 상반기 성장률이 낮아짐.
 - 이러한 기조는 2005년 전체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 IT 재고의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증가하겠지만, 연료비 및 공공시설 요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소비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필리핀 경제도 민간 및 정부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소비·수출의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성장세가 낮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 낮은 4.7%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해외근로자의 송금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지속과 농업생산 감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2004년 2/4분기 이후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어 왔던 싱가포르 경제는 2005년 1/4분기를 저점으로 2/4분기에는 5.2% 성장하였고 3/4분기에는 6% 이상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확실한 회복 기초를 보이고 있음.
 - 싱가포르의 최대 업종인 전자부문이 회복되고 있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 2005년 상반기 중 경제성장률이 이미 4.0%를 기록함에 따라 2005년 전체로는 4%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태국 경제는 원유수입액의 큰 폭 증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본설비 수입확대, 민간소비의 증가세 둔화 등으로 2005년 들어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음.
 - 하반기에는 치킨과 새우를 비롯한 농수산물, 전자제품 등의 수출호조, 관광부문의 회복, 정부 재정지출의 확대 등으로 성장동력을 다소 회복, 5.0%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안정된 정치 환경을 바탕으로 한 대외개방 확대와 민간분야 육성 등에 힘입어 2005년 상반기에도 7%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 2000년대 이후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가는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05년 전체로도 외국인직접투자의 확대에 따른 기술이전 호조와 수출 증가 등을 배경으로 8% 전후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과의 대외무역이 급증하고 있지만, 2005년 12월을 목표로 노력해왔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10월 말 현재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과의 양자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해 2006년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임.

나. 2006년 주요 이슈

- 인도네시아에서는 유도요노(S. B. Yudhoyono) 대통령의 개혁지속 여부

와 테러재발 방지가 최대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고유가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도요노 대통령의 경제개혁과 부정부패 방지 노력의 성공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06년 말레이시아에서는 새롭게 시작되는 9차 5개년 개발계획(Ninth Malaysia Plan), 바다위(Abdullah Badawi) 총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계기업(GLC)과 제1 국민차 기업인 프로톤(Proton)에 대한 개혁 등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리고 2005년 말 또는 2006년 초로 예상되는 개각, 불법 외국인노동자 추방과 관련하여 형성된 인도네시아와의 긴장 완화 여부, 태국 남부 무슬림 소요사태에 따른 양국간 관계 등도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필리핀에서는 아로요(G. M. Arroyo)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적 이슈와 남부 무장반군(MILF)의 활동지속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정치적 이슈는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특히, 2004년 대통령 선거 당시의 부정 논란과 대통령 가족의 부정부패 연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아로요 대통령이 정치력 회복과 상원 개혁을 이유로 제기한 개헌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

□ 싱가포르는 2006년 초 조기 총선 실시와 집권 인민행동당(PAP)의 무난한 정권 장악이 예상되는 가운데, 3년 연속 적자 기조를 보이고 있는 재정의 흑자 반전 여부와 최근 FTA를 체결한 인도와의 경제협력 확대가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임.

□ 태국에서는 새로 시작되는 인프라 개선 5개년 계획이 경제적으로는 최고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 다음으로는 조류독감(AI) 방지, 탁신 정부의 포퓰리즘적 정책 지속 여부, 남부 무슬림 사회의 소요 지속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인프라 투자는 주로 도로, 철도 등 교통체계를 선진화하고 방콕 북쪽에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방콕의 교통 혼잡을 완화함과 동시에 유효수요 확대를 추진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베트남의 2006년 최대 이슈는 하반기 개최되는 제10기 공산당 전당대회이며, 그 다음으로는 WTO 가입 재추진, APEC 의장국 역할 수행, 최초의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ttee) 설립 및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 제정에 따른 투자환경 개선, 국유 대외무역은행(Bank for Foreign Trade)의 부분 민영화 등이 있음.

- 특히, 전당대회는 향후 5개년을 끌고 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점과 선출될 지도부의 성향을 보면 베트남의 향후 경제정책기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국유 상업은행의 민영화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베트남의 국유기업 개혁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음.

□ 인도차이나의 캄보디아는 연립정부의 안정 지속과 국제사회의 지원 지속 여부, 라오스는 지도부의 개편과 WTO 가입 노력, 미얀마는 군부의 “Roadmap to Democracy” 의 실천과 2005년 11월 전격 발표한 행정수도 이전(Yangon→Pyinmanar)의 후속 작업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됨.

다. 2006년 성장 전망

□ 2006년 동남아 경제는 풍부한 성장잠재력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지속 등을 배경으로 2005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동남아 경제의 중요하고도 공통적인 대외 요인으로는 고유가 지속, 전세계 IT 경기의 회복 지연,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 중국 경제의 성장 감속 등 외부요인을 들 수 있음.
 - 폭등한 유가는 동남아의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인플레이를 유발시킬 것으로 보이며, 금리 인상, 환율 절하, 재정부담 가중 등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싱가포르를 비롯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비중이 매우 높은 관계로 전세계 IT 경기의 회복 지연은 수출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수입물가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 외자유입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반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에 따른 구매력 확대, 중국·ASEAN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005년 7월)에 따르는 관세인하 등은 對중국 수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특히 위안화 절상은 중국 경제의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경제의 연착륙 및 지속성장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이미 예견되었던 데다 소폭의 절상에 그쳐 동남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향후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때마다 동남아 각국 통화는 계속적으로 절상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대내요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점은 조류독감의 역내 확산 및 인간 전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 및 서비스 산업과 농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2006년 인도네시아 경제는, 대다수 전문가 및 국제기관이 예측하고 있듯이 2005년과 비슷한 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며, 물가상승률은 2005년에 이어 다소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임.
- 유가보조금 철폐 등에 따른 정치사회적 불안은 경제개혁 추진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이고 투자정서 또한 해칠 것으로 보임. 2006년 1월 예정된 수도권 최저임금 인상(15.1%)도 외자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2005년 대비 14.5% 증액된 200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경기부양을 통한 경제성장 기조를 강조, 2006년 경제성장 목표를 6.2%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표 2-20. 인도네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4.9	5.1	5.8	5.8
GDP(명목)	10억 달러	238.5	257.7	274.0	307.2
CPI 상승율	%	6.8	6.1	8.2	6.5
경상수지/GDP	%	3.4	1.2	-0.4	0.7
환율(평균)	루피아/달러	8,576	8,937	9,748	9,819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말레이시아 경제는 2006년 제9차 개발계획 시작에 따른 정부 투자 확대 등의 영향으로 성장폭이 2005년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바다위 총리가 추진해 온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부패 축소, 부패처벌 강화, 투명성 향상, 싱가포르와의 유대 강화 노력, 국제금융자본과의 관계 개선 등이 향후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됨.
 - 반면, 높은 부채 수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 및 금리상승, 일부 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력 부족, 환율제도 변경에 따른 링깃(Ringgit)화 강제 등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됨.

표 2-21. 말레이시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5.4	7.1	5.5	6.0
GDP(명목)	10억 달러	103.7	117.8	129.9	144.1
CPI 상승율	%	1.1	1.4	3.0	2.5
경상수지/GDP	%	12.7	12.6	13.5	12.4
환율(평균)	링깃/달러	3.80	3.80	3.78	3.70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2006년에도 필리핀은 해외 근로자의 국내송금 증가, 13% 증가된 예산 및 이로 인한 사회간접자본 지출 확대 등으로 2005년과 비슷한 4%대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고유가 지속에 의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 차질과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행정부의 정치력 약화, 동남아 정치 불안과 남부 민다나오

(Mindanao) 섬의 반군 활동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위축 등은 경제성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표 2-22. 필리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4.5	6.0	4.7	4.8
GDP(명목)	10억 달러	77.7	84.6	93.9	101.8
CPI 상승율	%	3.5	6.0	8.2	7.5
경상수지/GDP	%	1.8	2.7	2.1	1.9
환율(평균)	페소/달러	54.20	56.04	55.56	57.04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2006년 싱가포르 경제는 고유가 지속과 전세계 IT업종 회복 지연 등의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자산가격 상승을 바탕으로 한 소비 및 투자 호조, 부동산 경기 호전, 카지노 등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으로 5%대의 성장률을 기록,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고유가 지속은 유가상승으로 석유부문 수출증대효과가 있는 반면, 고비용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활동 축소로 인해 싱가포르의 비석유부문 수출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최대 업종이자 최대 수출품목인 IT 부문의 회복 지연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생의학(bio-medical)업종의 생산변동폭 확대 등은 싱가포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음.

표 2-23. 싱가포르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1.4	8.4	3.9	4.5
GDP(명목)	10억 달러	92.3	106.8	114.2	127.1
CPI 상승율	%	1.8	2.7	4.2	2.7
경상수지/GDP	%	29.2	26.1	25.7	22.7
환율(평균)	싱달러/달러	1.74	1.69	1.66	1.64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2006년에는 태국 경제가 다소 높은 5%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요 성장 요인으로는 수출 호조, 관광산업의 회복세, 2005년 7월 발표한 인프라 개선 5개년 계획에 의한 내수회복 등을 들 수 있음.
- 미국과 EU의 태국 치킨 및 새우에 대한 수입제한 조치 완화와 국제농산물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5년 4/4분기부터 본격 투입될 인프라 투자는 5년간 총규모가 1조 7,000억 바트(약 420억 달러)에 달하고 매년 83억 달러(태국 GDP의 5% 규모)가 투입될 예정이어서 태국의 성장활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반면, 바트(Baht)화의 급속한 절상에 따른 수출경쟁력 상실, 고유가 및 연료 보조금 폐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위축, 조류독감 재발가능성 등은 태국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표 2-24. 태국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6.9	6.1	3.5	5.0
GDP(명목)	10억 달러	142.7	163.4	178.9	197.2
CPI 상승율	%	1.8	2.8	4.0	3.0
경상수지/GDP	%	5.6	4.5	-2.5	-2.5
환율(평균)	바트/달러	41.55	40.26	40.18	39.97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2006년은 베트남의 경제환경이 대폭 변화되는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임.
- 우선 2001년 수립된 10개년(2001~10) 사회·경제개발계획의 제2차 5개년 계획(2006~10)이 새로 시작됨.
 - 베트남 정부는 이 기간동안 연평균 7.5~8.0%의 GDP 성장률 달성, 2010년 1인당 GDP 1,000달러 달성, 연간수출 증가율 14~16% 등 지속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 다음으로는 WTO 가입 및 경제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많은 제도와 법령들이 2006년부터 시행되어 베트남의 경제시스템 및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임.
- o 수입품과 국내 생산품에 대한 동일 특소세 부과, 부가가치세의 통합운영(3단계→2단계), ASEAN 회원국에 대한 1만 227개 품목의 관세인하(평균관세율 4.7%→2.17%), 외국기업 근로자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강화, 근로자 최저임금 대폭 인상, 토지거래법(Land Law) 개정 및 부동산 거래법(The Law on Real Estate Transactions) 제정·시행, 통합기업법(Common Enterprise Law) 및 통합투자법(Unified Investment Law) 제정·시행, 상법(Commercial Law) 및 관세법(Customs Law) 개정,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적용 확대 등이 예정되어 있음.

표 2-25.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추이 및 전망(2003~06)

	단 위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GDP 성장률	%	7.3	7.7	7.5	7.0
GDP(명목)	10억 달러	39.0	45.3	52.3	58.4
CPI 상승율	%	3.2	7.7	8.0	5.5
경상수지/GDP	%	-4.9	-3.8	-4.7	-4.7
환율(평균)	동/달러	15,511	15,743	15,851	15,973

자료: Global Insight and IMF.

-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베트남 경제는 2006년에도 외국인투자 확대, 중국에 대한 수출 등 대외교역의 대폭 증가 등이 예상되어 7%가 넘는 고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베트남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는 고유가 지속과 통화 팽창 등에 의한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부실채권 문제 지속, 최대 경제협력파트너인 일본의 성장위축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미국 금리의 지속적인 인상과 달러화 가치 급변 등에 기인한 동(Dong)화의 불안,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의 확산 가능성 등을 들 수 있음.

□ 그 외 인도차이나 3국(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은 외국인투자, 풍부한 자연자원 등을 배경으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브루나이는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미비 및 급진 이슬람 세력의 활동 강화 등으로 경제가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

표 2-26. 그 외 동남아 국가의 주요 거시경제 추이 및 전망(2003~06)

(단위: %)

국명	분류	2003	2004	2005(전망)	2006(전망)
캄보디아	GDP 성장률	7.1	7.7	6.3	6.1
	CPI 상승률	0.5	5.6	5.5	3.5
	경상수지/GDP	-3.1	-3.4	-4.8	-3.8
라오스	GDP 성장률	5.8	6.3	7.3	7.0
	CPI 상승률	15.5	10.5	5.9	5.0
	경상수지/GDP	-7.6	-13.2	-16.4	-15.6
미얀마	GDP 성장률	13.8	5.0	4.5	3.5
	CPI 상승률	24.9	10.0	21.0	32.5
	경상수지/GDP	0.2	-0.4	-0.7	-1.1
브루나이	GDP 성장률	3.8	1.7	3.0	2.2
	CPI 상승률	0.3	0.9	1.0	1.0
	경상수지/GDP	68.0	68.2	72.8	67.0

자료: IMF.

제3장 국제금융시장 전망

1.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 이슈

- 2005/2006년 국제금융시장의 이슈 중 하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향후 금리정책 방향임.
 - 2006년 1월 31을 기준으로 미 FRB 의장인 그린스펀의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의장인 버넌키(Ben S. Bernanke)체제가 시작됨. 따라서 2006년에도 현재와 같은 기조로 금리정책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또 다른 하나의 중요 이슈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위안화 움직임으로 전망됨.
 - 2005년 7월에 위안화 절상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문제가 그대로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위안화 절상 압력이 고조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율 절상 이외의 대안도 중요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금리정책 방향

- 11월 1일 25bp 금리 인상 단행을 포함해서 2005년 11월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0%에 도달함.
 - 미 FRB는 2004년 6월부터 현재까지 12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0%에서 4.0%로 인상하였음.
 -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에 압력 증가와 더불어 최근 미국의 견조한 성장 기조가 확인되면서 금리인상이 단행된 것으로 판단됨.
 - 허리케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3/4분기 실질GDP성장률(추정치)이 2/4분기 보다 0.5%p 높은 3.8%를 기록함. 허리케인의 피해로 3/4분기 실질 GDP가 0.5~1.0%p 정도 감소된 것을 고려하면, 허리

케인의 피해가 없었다면 3/4분기 실질 GDP성장률은 4%를 초과했을 가능성이 큼.

- 9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월비 대비 6.9%, 4.7%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함.

- 2006년 1월 31일에 그린스펀 FRB 의장이 사임하고 차기 의장으로서 버넌키가 지명됨. 버넌키는 11월로 예상된 상원인준 절차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금리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그린스펀 FRB의장은 경기둔화 요인보다 인플레이 요인에 중점을 둔 금리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따라서 2006년 퇴임하는 그린스펀 FRB의장의 임기 동안 2회의 FOMC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2006년 1월말 금리수준은 4.5%에 이를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버넌키는 2002년 FRB이사로 임명된 이후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피력한 바 있어 물가안정보다는 경제성장에 중점을 두고 금리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제기됨.
 - 버넌키가 그린스펀에 비해 물가 상승을 용인할 것이라는 전망 등으로 현재의 통화긴축 기조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미 채권시장이 하락하기도 하였음.
-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고 난 직후 버넌키는 그린스펀 재임기간 동안 지속된 통화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힘.
 - 버넌키는 2006년 2월부터 FRB의장으로서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2006년 2월 버넌키 취임 이후에도 물가안정을 중심을 둔 금리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주장한 것을 고려할 때 향후 통화정책 운용 방법에 있어 그린스펀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에 따른 주요국 금리 차이 확대로 주요국 정책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 여건 및 인플레이 압력 등을 고려할 때 ECB와 BOJ의 금리정책 변화는 2006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고유가 현상 지속으로 주요국의 인플레이 압력이 커지고 있으나 경기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감으로 2005년에는 금리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 ECB총재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프랑스 폭동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경기회복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 않아 금리인상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일본은행도 디플레이션의 완화 신호가 포착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경기회복 조짐을 보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나 2006년 3월 회계연도 이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나. 글로벌 불균형과 위안화 움직임

- 미국과 주변국의 대외불균형의 심화를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와 이에 따른 달러화 급락 가능성 때문임.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1998년 GDP의 2.4%정도에 불과했으나 2005년 현재 6.4%에 달하고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미국과 주변국의 대외불균형의 문제이나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대내불균형에서 비롯됨. 즉 국내저축보다 투자가 큼으로써 발생하는 대내 불균형이 대외불균형을 초래한 것임.
 - 미국의 국내투자가 국내저축보다 큼으로 인해 대내불균형이 발생하였고 이는 결국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짐.
-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을 아시아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 통화의 대부분은 위기 이전에 비해 15~20% 절하되었는데

이러한 절하의 혜택이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를 초래함.

- 뿐만 아니라 투자의 감소도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함.

□ 글로벌 불균형의 심화는 동아시아 국가의 외환보유고를 급격하게 증대시켰고 축적된 외환보유고는 주로 달러화 혹은 미 재무성 증권투자에 집중되어 있음.

- 동아시아 중앙은행들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었으며 이 결과 달러화 가치가 폭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였음.

□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미국 및 세계경제의 급격한 조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시킬 수 있음.

- 미국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될 경우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이 저하되고 달러화 가치가 급락할 가능성이 상존

-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미국자산 매입 수요가 급감함으로써 미 달러 표시 자산가격의 폭락과 전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시킴.

□ 따라서 완만한 조정을 위한 정책변화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함. 이러한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서 위안화 절상 및 환율제도 개혁이 대두되었음.

- 지난 7월 21일에 위안화는 2% 절상을 단행하였고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를 도입하였음.

- 이러한 소폭의 절상폭으로는 위안화의 저평가 상황이 시정되지 않고 미국의 對중국 무역수지 적자도 해소되지 못할 것임.

- 따라서 글로벌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위안화의 추가절상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큼.

□ 11월 중순 부시 방중을 앞두고 위안화 추가절상 압력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음.

- 2% 절상 조치 이후 달러당 8.11위안이었던 환율은 최근 연 저점을 갱신하면서 8.08위안까지 떨어졌음.

- 중국 외환당국은 지난 7월과 같은 절상조치를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외환시장의 참여자 확대 등을 통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환율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위안화는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점차적으로 절상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중국의 환율제도 변경과 추가 절상이 글로벌 불균형 문제의 근본적인 해소 방안인가는 여전히 의문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은 아시아 국가의 협조가 필수적 요소임.
 - 즉 위안화의 절상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의 동반 절상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위한 아시아 국가의 절상은 어려울 수밖에 없음.
- 글로벌 불균형은 무역흑자국의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음.
- 최근 일본의 경기회복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경우 불균형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아시아국가의 환율조정과 소비 진작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지속적으로 국제금융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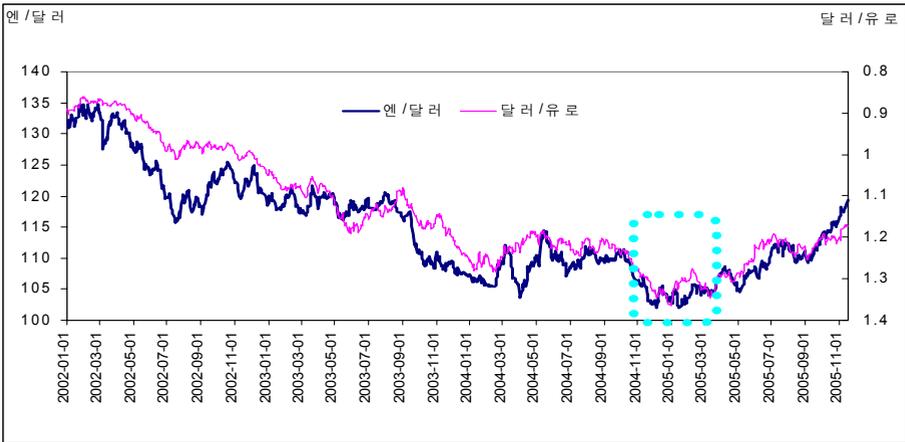
2. 2005/2006년 환율 전망

- 2005년 초만 하더라도 미국의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 등 글로벌 불균형 문제로 글로벌 달러화 가치는 하락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이러한 연초 예상과 달리 글로벌 달러화 가치는 강세를 보였음.
- 2002년 초부터 시작되었던 글로벌 달러화 약세는 2005년 초를 기점으로

로 약화되었고 점진적으로 강세로 전환되었음.

- 1.35달러까지 강세를 보이던 유로화는 1.20달러선이 붕괴되었고 100엔대 붕괴 가능성까지 전망되었던 엔화는 120엔까지 급등하였음.

그림 3-1. 주요국 환율 추이



주: 환율자료는 2002년 1월 1일부터 2005년 11월 16일까지임.
 자료: 블룸버그 데이터베이스

- 이러한 최근의 달러화 강세 전환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연속적인 금리인상 조치와 추가 금리인상 전망에서 기인됨.
 -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4년 6월(1.00%) 이후 12차례에 걸친 연방기준금리를 인상시켜 2005년 11월 현재 4.0%까지 상승시킴.
 - 헤리케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 FOMC회의에서 0.25%p 금리를 인상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금리인상 기조 유지를 밝힘.
 - 반면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은 각각 2.0%와 0.001%의 기준금리를 유지시켰음.
 - 미국과 다른 국가와의 금리차 확대는 미국으로의 자금유입을 촉진시키고 있음. 결국 이러한 금리차 확대와 자본유입이 달러화 강세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됨.

- 금리인상 이외에 양호한 미국경제 현황이 또 다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05년 1/4~2/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전년동기비 대비 3.8%, 3.3%, 3.8%를 기록한 반면 유로지역의 성장률은 각각 1.3%와 1.1%, 일본의 성장률은 1.3%와 1.4%를 기록함.

- 향후 글로벌 달러화 가치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달러화는 주요국의 금리정책에 의해서 크게 의존될 것이며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에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달러화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미국의 금리인상 요인 이외에 ECB와 BOJ의 통화정책 변화도 중요한 요인임.
 - 또한 금리인상에 가려져 있던 미국의 대외불균형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달러화 향방에 중요한 요인임.

- 2006년 1/4분기까지는 지금과 같이 달러화 강세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 2006년 퇴임하는 그린스펀 FRB의장의 임기 동안 2회의 FOMC에서 금리인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006년 2월말 FRB의장으로 취임하는 버넌키의 금리정책도 현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금리인상에 따른 달러화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유럽경제의 성장세가 미약하고 일본은 2005년 2/4분기 실질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3.3%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따라서 뚜렷한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물가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리인상 정책으로 선회하기 어려움.
 - ECB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12월 1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함(2.0%→2.25%). 그러나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등을 고려할 때 미국과 같은 연속적인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낮아 보임.

- 2006년 1/4분기 이후에는 경제상황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어 일방적인 달러화 강세 지속 전망은 둔화될 것임.

- 2006년에도 고유가 지속에 따른 인플레이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2006년 미국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4분기 이후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됨.
 - 게다가 중립적인 통화정책에 접근 중에 있으며 버넌키 연준 의장이 부임하는 2006년 2월에는 중립기조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음.
-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2006년 상반기 이후에 ECB와 BOJ도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
 - 유로지역의 경우 저금리 정책의 결과로 기업들의 투자의욕과 투자가 확대되어 2006년에는 2005년 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게다가 유로지역의 9월 물가 급등으로 그 동안 유지되어왔던 ECB의 저금리 정책 선회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05년에 이미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일본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 확산은 제로 금리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BOJ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경기회복의 신호로 인식되어 엔/달러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결국 2006년 1/4분기 이후 달러화는 주요국 경제지표에 따라서 혼조양상을 보일 것이지만 상반기 이후에는 주요국간 금리격차가 축소되면서 미달러화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2006년의 달러화 약세 전환은 미국의 경상/재정수지 적자가 얼마나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임.

-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4년 6,681억 달러로 GDP 대비 5.7%로 증대되었고 2005년 1/4분기에는 6.4%로 더욱 더 확대됨.
- 2005년 2/4분기의 재정수지는 448억 달러 흑자 반전을 기록하였지만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복구를 위해 623억 달러의 재정지출이 승인된 바 있으며 추가적인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 재정수지는 재차 적자로 반전될 것임.

- 결국 글로벌 달러화 가치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주요 경제전망기구인 WEFA-DRI와 국제투자은행(IB)의 전망치도 점차적으로 달러화 약세를 예견하고 있음.

표 3-1. 주요국 환율 전망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유로화 (달러/유로)	WEFA-DRI	1.23	1.26	-	-
	투자은행	1.1907	1.2375	1.2680	1.2736
엔화 (엔/달러)	WEFA-DRI	112.91	109.74	-	-
	투자은행	116.36	113.17	111.40	106.21
원화 (원/달러)	KIEP	1014.33		1,000.32	

주: 투자은행은 14개 국제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임.

자료: WEFA_DRI, Online Database, 2005. 11.

국제금융센터, 2005년 12월 6일 보도자료.

3. 주요국 정책금리 전망

- 주요국 정책당국의 관심사는 점진적으로 경제회복 여부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바뀌고 있음.
 - 인플레이션 우려는 주로 고유가 지속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허리케인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005년 9월 20일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향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 12월 중순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0.25%p정도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2005년 연방기준금리는 4.25%가 될 전망(현 기준금리는 4.0%)임.

- ECB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서 12월 1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시킴(2.00%→2.25%).
 - 주요 원인으로는 유로지역의 9월 인플레이션 급등에서 찾을 수 있음.
 - ECB의 유로존 소비자물가 목표치는 연 2.0%인데 9월에 2.5%로 급등함.
 - 그러나 2005년 경제회복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은 2006년 상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됨.

- 일본경제의 경우 회복국면에 진입하고 있고 도쿄 지가가 15년만에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등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2005년 말까지는 현재의 제로금리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2006년 3월 이후에는 현재의 통화완화정책이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 유로지역과 일본은 2005년에는 금리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006년에 경기 회복세 정도와 인플레이션 압력 정도에 따라서 금리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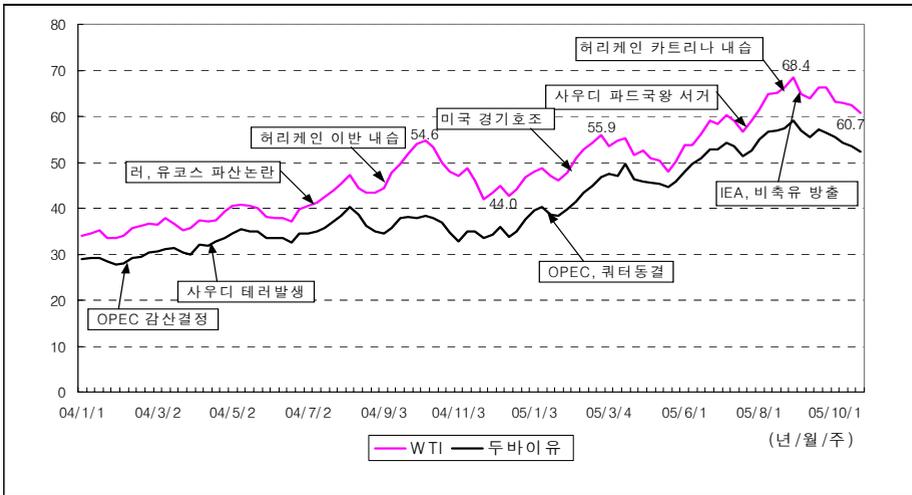
제4장 유가 전망

1. 최근 유가 동향

- 2005년 3/4분기에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에 대응한 IEA의 비축유 방출이 시작된 9월초 이후 현재까지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카트리나로 멕시코만 석유시설이 파괴된 8월 5주에 국제유가(두바이 현물 기준)는 장중 60달러를 돌파했으며 주평균으로는 59.0달러를 기록함.
 - 이에 대응하여 IEA 회원국들은 30일간 하루 200만 배럴씩 총 6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결정(9월 2일)
 - IEA의 비축유 방출결정 이후 국제유가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11월 3주 현재 국제유가는 51.3달러로 약 2개월 사이에 약 9달러(15%) 하락

그림 4-1. 국제유가 동향 (2004~2005년)

(단위: 달러/배럴)



2. 2005년 국제유가 급등 원인

- 2005년 연평균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49~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무려 40% (16달러)나 증가한 수준임.

표 4-1. 2005년 국제유가의 변동

(단위 : 달러/배럴)

유종	2004년			2005년					변동 (B-A)
	상반기	하반기	연평균 (A)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연평균 (B)	
두바이	31.4	35.9	33.6	41.8	48.0	55.5	53.7	49.2	▲15.6
WTI	36.8	46.1	41.4	50.2	53.1	63.2	61.4	56.3	▲14.9

주: 2005년 4/4분기 및 연평균은 11월 3주까지의 값임.

- 2005년 국제유가 급등의 근본 원인은 OPEC의 잉여생산능력 부족이라는 타이트한 수급상황에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미국경기호조, 중동불안, 정제 시설 부족, 허리케인 피해 등 4가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미국 경기호조: 상반기에 미국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훨씬 호조를 보였고, 5월에 소프트 패치(soft patch) 우려도 잠시 있었지만 건실한 성장이 예상되면서 세계 석유수요와 유가상승을 강하게 견인
- 7월까지의 국제유가 상승분 중 적어도 10달러 내외의 상승은 미국 경기 호조로 인한 석유수요 증가 요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정제설비 부족: 세계 전체적인 정제설비 부족으로 정유공장 가동 차질이 빚어지면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초래되고, 그 결과 원유가격까지도 인상되는 연쇄효과가 발생함.
- 7월초~8월말 동안의 유가상승분 10달러 중 적어도 7달러 내외는 정제

설비 부족과 가동 차질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허리케인 피해: 8월말의 카트리나와 9월 중순의 리타로 멕시코만 원유생산이 큰 타격을 입어 국제유가 급등이 초래될 수 있었지만, IEA의 비축유 방출로 상승세가 진정됨.
 - IEA의 개입이 없었다면 허리케인으로 최소한 10달러의 유가상승 요인이 발생했겠지만, 10월 말 현재 유가는 허리케인 전에 비해 약 5달러 하락하여 IEA 비축유 방출이 약 12달러의 유가인하 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
- 중동정세 불안: 중동정세 불안은 시장에 이미 반영되어 2004년에 비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이라크 사태 악화, 사우디국왕 사망, 이란 핵문제 악화가 3달러 내외의 유가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됨

표 4-2. 2005년 주요 요인별 국제유가(두바이 기준) 영향

상승요인 영향				하락요인		합계
상반기 美, 경기호조	정제설비 부족	허리케인 피해	중동정세 불안	IEA비축유 방출	하반기 美, 경기둔화	유가상승
↑ 10\$	↑ 7\$	↑ 10\$	↑ 3\$	↓ 12\$	↓ 2\$	↑ 16\$

자료: KIEP 자체 추정

3. 2006년 국제유가 5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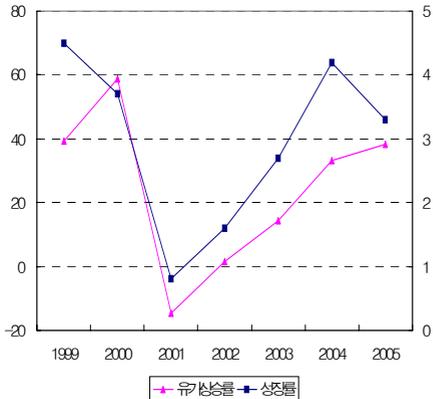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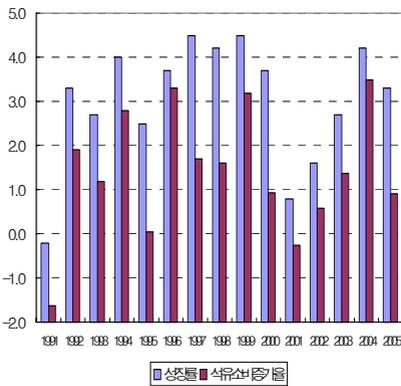
가. 미국 경기

- 2006년에도 미국의 경기와 그에 따른 석유수요 변화가 국제유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세계 전체 석유수요의 1/4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 원유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미국 석유수요증가율은 경제성장률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 (<그림 3> 참조).

- 국제유가가 수요요인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최근에는 미국 경제성장률과 유가상승률 간에도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 (<그림4> 참조).
- 특히 미국산 WTI의 선물가격이 국제유가를 확실히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석유수요 동향이 국제유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그림 4-2. 미국 성장률과 석유소비증가율 그림 4-3. 미국 성장률과 국제유가상승률



- 2005년 4분기 이후 고유가의 영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물가상승과 이에 대응한 금리인상이 미국 경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가 관건임.
 - 2006년 중반에는 미국 기준금리가 4.5-4.75%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저금리시대의 종말이 미국 경기를 얼마나 진정시키느냐가 국제유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임.
 -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국 성장률이 3.3%를 넘어서면 국제유가는 상당한 상승 압력을 받는 반면, 2%대의 성장률이면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성장률과는 관계없이 금리 인상은 원유시장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을 억제하고 달러화 환율을 상승시킴으로써 미세하지만 국제유가의 하

락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나. 중국 연료세 도입

- 중국의 석유소비 증가 요인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석유소비가 완만한 속도로 증가하여 국제유가에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05년 석유소비량이 670만b/d로 세계 2위의 소비대국인데, 2003년 이후 소비가 급증 하면서 고유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음.
 -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는 고유가와 에너지 부족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강력한 에너지절약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에너지절약정책과 고유가의 결과 2005년 9%내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석유소비는 약 40만b/d 증가하는 데 그쳤는데, 이는 전년 증가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임.

- 중국은 최근 석유소비절약을 위해 자동차용 연료에 대한 연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되면 국제유가의 중요한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몇 년 전부터 휘발유와 디젤유에 연료세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200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유가급등으로 시행을 연기하고 있음.
 - 고유가에 연료세까지 부과될 경우 기업의 생산비 가중과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하지만, 중국당국의 연료세 부과 원칙은 확고하며 시행시기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급등이 진정되면 2006년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음.
- ※ 2004년 현재 중국의 국내석유가격은 디젤이 리터당 43센트, 고급휘발유가 48센트로, 미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아시아 국가 중 거의 최저 수준임.

- 전체 석유소비 중 30% 이상이 운송용이며, 최근 고유가로 국내자동차 판매가 감소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연료세 부과는 상당한 석유소비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그림 4-4. 중국의 성장률과 석유소비 증가

(단위: 만b/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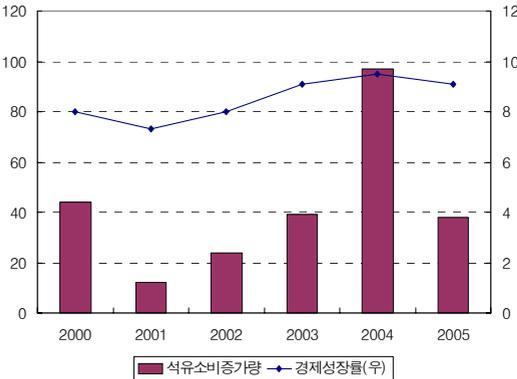


표 4-3. 주요국의 국내 유류가격 (2004)

(단위: 센트/리터)

	디젤유	고급휘발유
중국	43	48
러시아	45	55
인도	62	87
브라질	49	84
미국	57	54
대만	55	71
한국	95	135

다. 이란 핵문제

- 2005년 8월 이란의 강경보수파인 아흐마디 네자드가 대통령으로 취임함과 동시에 핵개발을 재개하면서 이란에 둘러싼 국제정세와 이란의 석유정책이 매우 불투명해졌음.
 - 이란은 핵개발 중단에 관한 EU 3국(英, 佛, 獨)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2005년 8월 핵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EU와 미국은 9월 IAEA를 통해 이란 핵문제의 UN안보리 회부를 추진하였음.
 - 중국, 러시아 등의 반대로 안보리 회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IAEA 사무총장에 의한 회부 검토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고, EU와 미국이 안보리 회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여 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석유의 무기화를 수차례 언급했고, 10월초에는 이란 핵문제가 안보리에 회부될 경우 석유판매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경고하였음.

□ 만약 이란 핵문제가 UN안보리로 회부되고 그에 대응하여 이란이 석유수출을 일부 중단할 경우, 세계석유시장은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됨.

- 이란의 석유생산량은 약 400만b/d로 OPEC국가 중 사우디에 이어 2위이며, 이중 약 170만b/d를 유럽 등 OECD 국가에 수출하고 있음.
- UN안보리에서의 경제재제 결의나 이란의 석유수출 전면중단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서방의 압박에 대응한 부분적인 석유무기화 조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 이란은 1차 오일쇼크의 원인이 된 아랍의 석유금수조치(1973년)에 참여한 바 있으며, 2차 오일쇼크의 원인이 된 호메이니혁명(1979년) 때는 석유수출이 전면 중지되기도 하였음.

- 석유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석유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는 이란의 어떤 조치도 불확실성을 초래하여 국제유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됨.

라. 이라크 정세

□ 10월말 이라크 새 헌법안이 국민투표에서 통과되었지만 향후 종족간 대립은 더욱 첨예화되고, 2006년에 미군감축이 시작되면 치안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종족간 분할에 기초한 연방제를 상정하고 있는 헌법안 마련 이후, 미군에 대한 저항은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파간 대립 혹은 내전의 양상으로 악화되었음.
- 정치권력과 석유수익에서 배제된 수니파는 총선 등 정치일정 참여거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저항세력은 시아파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하고 있음.
- 새 헌법안에 따르면 석유수익이 지방정부에 귀속되므로, 유전지대가 거

의 없는 중서부 주에 거주하는 수니파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함.

- 만약 이라크 상황이 내전상황으로 확대되고 석유시설 파괴가 저항세력의 목표가 될 경우 국제유가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이라크는 190만b/d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정국불안과 재원부족으로 전쟁 전에 비해 50만b/d 정도 적게 생산되고 있음.
 - 이라크는 OPEC 전체 잉여생산능력의 약 1/3을 보유하고 있어 정정이 안정되어 생산이 증가되면 유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음.
 - 최근 석유생산 증가추세가 내전으로 인한 석유시설 파괴로 반전되면, 산유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국제유가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음.

마. 허리케인 피해

- 2004년과 2005년 연이어 허리케인의 피해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였는데, 허리케인 피해의 확률이 최근 높아진 것으로 판단됨.
 - 북대서양의 해수면 온도 상승(엘리뇨 현상)으로 허리케인의 강도가 강해지는 추세에 있어 2006년에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됨.
 - ※ 조지아텍의 분석에 따르면 초대형 허리케인이 1970년대에는 한 시즌에 10개 정도 발생했지만 1990년대 이후에는 18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허리케인 피해 영향이 1년 이상 지속되는 상황에서, 멕시코만에 추가적인 허리케인 피해가 발생하면 큰 폭의 국제유가 상승이 유발될 것으로 예상됨.
 - 2004년의 경우 피해가 80%까지 복구되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소요되며, 유가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데는 최소 3개월이 소요됨.
 - IEA에 따르면 카트리나와 리타의 영향은 1년 이상 지속되어 2006년 미국 산유량이 연평균 30~40만b/d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이런 상황에서, 2006년에 허리케인 피해가 추가될 경우 IEA 비축유 방출의 긴급대응이 없다면 국제유가는 80달러를 초과할 수도 있음.

4. 2006년 유가전망

-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요인이 2006년 국제유가 결정의 변수라고 한다면,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미국의 정제시설 부족은 국제유가 결정의 상수라고 할 수 있음.
- 타이트한 원유 수급상황으로 인해 OPEC의 잉여생산능력(excess capacity)은 2006년에도 150만b/d 이내(이라크 제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IEA은 2006년에는 세계 석유수요가 180만b/d 증가하는 반면, 비 OPEC 산유량은 130만b/d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는데, 균형을 위해서는 OPEC이 50만b/d를 더 증산해야 함.
 - 따라서 OPEC의 생산능력이 최대 70만b/d 증가하여도 잉여생산능력은 현재보다 20만b/d 증가하는 데 그치며, 러시아나 아프리카 등 비 OPEC의 생산이 예상만큼 증가되지 않으면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음.
 - 정제가동율이 95%를 넘는 미국의 정제시설 부족 문제도 2006년에 계속 되어,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원유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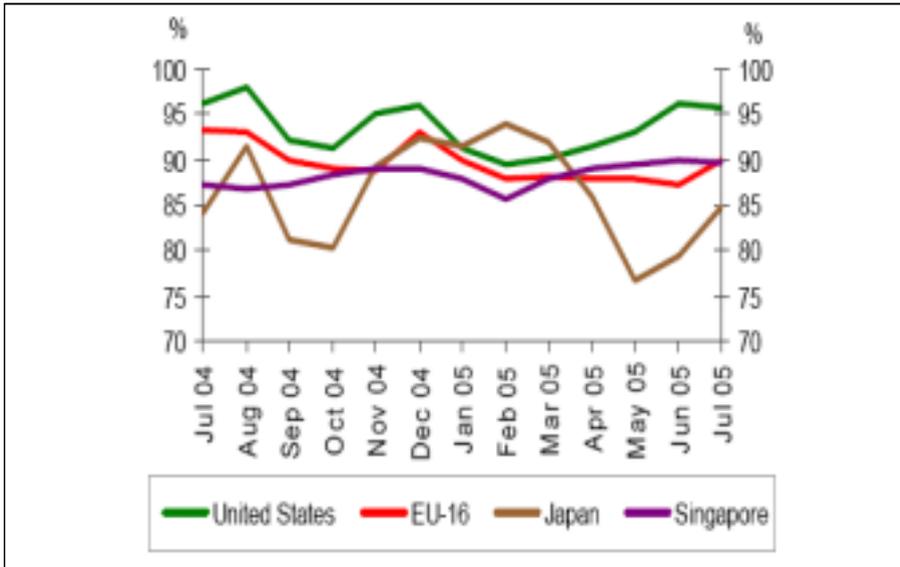
표 4-4.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b/d)

총수요	2005년	2006년
	83.5	85.3
OECD	49.9	50.3
북미	(25.6)	(26.0)
비OECD	33.6	34.9
중국	(6.7)	(7.1)
기타 아시아	(8.7)	(9.0)
총공급	-	-
비OPEC	50.6	52.0

자료: 국제에너지기구(IEA)

그림 4-5. 주요국 정제설비 가동률 현황



자료: OPEC

표 4-5.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시나리오	내용	두바이 유가	WTI 유가
고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3% 이상 •이란 핵문제와 석유 연계 •허리케인 피해 발생과 비축유방출 	62±5 달러	75±5 달러
기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0~3.2% •중동정세 불안 현 수준 유지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 미발생 	50±3 달러	60±3 달러
저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2.5%~3.0% •중국 연료세 도입 •산유국의 테러 및 파업 미발생 	43±2 달러	50±2 달러

표 4-6. 국제기관 유가전망

(단위: 달러/bbl)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05		2006년					비고
		4/4	평균	1/4	2/4	3/4	4/4	평균	
CGES (10.24)	Brent(D)	58.50	54.80	58.60	55.10	56.50	64.00	58.50	기준유가
		58.50	54.80	59.10	58.00	57.50	58.50	58.30	선도가격기준
		59.50	55.00	62.90	64.00	67.80	79.40	68.50	고유가
		58.50	54.80	58.60	51.50	43.00	37.10	47.50	저유가
ESAI (10.17)	Dubai	54.67	49.72	51.13	n.a	n.a	n.a	n.a	
	Brent(D)	58.58	54.67	55.45	n.a	n.a	n.a	n.a	
	WTI	61.67	56.74	57.33	n.a	n.a	n.a	n.a	
CERA (10.19)	Dubai	56.67	50.23	54.50	50.50	47.50	45.50	49.50	
	Brent(D)	60.67	55.39	58.50	54.50	51.50	49.50	53.50	기준유가
	WTI	63.00	57.29	60.00	56.00	53.00	51.00	55.00	
CERA (10.19)	Dubai	60.50	51.19	67.50	69.50	70.50	72.50	70.00	
	Brent(D)	67.50	57.10	73.50	75.50	76.50	78.50	76.00	고유가 (공급 부족)
	WTI	70.00	59.04	75.00	77.00	78.00	80.00	77.50	
	Dubai	50.00	48.57	44.50	37.50	35.50	37.50	38.75	
	Brent(D)	53.00	53.48	47.50	40.50	37.50	39.50	41.25	저유가 (수요 감소)
	WTI	55.00	55.29	49.00	42.00	39.00	41.00	42.75	
EIA (10.12)	WTI	64.42	57.60	64.42	63.75	64.75	65.08	64.50	
PIRA (9.30)	Brent	60.00	55.15	56.05	49.25	51.10	48.90	51.30	
	WTI	62.00	56.95	57.60	50.65	52.45	50.60	52.85	

주: CGES :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ESAI : 美 에너지안보분석사(Energy Security Analysis, Inc)

CERA :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자료: 한국석유공사

-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수준은 5대 변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중동 걸프지역과 러시아 등의 생산능력 확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미국의 경기가 2005년보다 소폭 둔화되면 2006년도 국제유가는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하지만,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거나 중동정세 악화, 허리케인 피해 등 불안요인이 가중되면 두바이 유가가 70달러 가까이 상승할 수도 있음.
 - 반대로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되어 석유수요가 감소할 경우에도, OPEC의 적극적 감산이 예상되므로 국제유가는 40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제5장 무역 및 투자 동향과 전망

1. 수출입 동향과 전망

□ 2001년 이후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무역규모 및 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무역규모: 2002년 3,146억 달러→2003년 3,726억 달러→2004년 4,783억 달러

- 무역수지: 2002년 103억 달러→2003년 150억 달러→2004년 293억 달러

가. 수출 동향

□ 2005년 9월까지 전년 동기간 대비 12.3% 증가율 기록 (전년 대비 2004년 전체 수출 증가율 31.0%, 2004년 9월까지 수출 증가율 35.1%)

표 5-1. 2004~2005년 9월 현재 수출 동향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2004			2005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1 월	18,987	32.6	2,778	22,456	18.3	3,035
2 월	19,137	43.5	1,668	20,403	6.6	2,032
3 월	21,175	37.7	2,055	23,955	13.1	1,202
4 월	21,483	36.7	2,653	22,875	6.5	1,654
5 월	20,834	42.0	2,939	23,126	11.0	1,991
6 월	21,657	38.3	3,113	23,718	9.5	2,462
7 월	21,004	36.1	2,614	23,244	10.7	1,782
8 월	19,799	28.8	1,675	23,348	17.9	1,446
9 월	20,831	22.4	2,638	24,560	17.9	1,925
1~9월 계	184,908	35.1	22,133	207,685	12.3	17,529

자료: 한국무역협회(이하 등).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이하 등)

- 고유가 등 가격 상승압력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석유제품, 합성수지, 철강관 등의 수출이 꾸준한 상승세를 나타냄.

표 5-2. 2005년 1~9월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합성수지	영상기기	철강관	의류
금액	22,437	21,102	19,925	10,467	13,110	10,590	7,714	5,452	7,710	1,743
증감률	14.5	15.5	5.4	-20.9	12.9	53.3	28.0	1.4	25.9	-26.3

- 2005년 9월까지 지역별로는 중국, 중남미 등 對개도국 수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對미국 수출은 감소세를 나타냄.

표 5-3. 2005년 1~9월 국가·대륙·경제권별 수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중국	미국	EU	일본	ASEAN	중남미	중동	CIS	대양주
금액	45,432	30,129	31,466	17,660	20,485	10,565	8,959	4,051	4,338
증감률	25.2	-3.4	16.9	12.2	16.4	35.2	10.0	-	17.9

나. 수입 동향

- 2005년 9월까지 전년동기대비 16.8% 증가율 기록(전년대비 2004년 전체 수입 증가율 25.5%, 2004년 9월까지 수출 증가율 26.3%).

표 5-4. 2004~2005년 9월 현재 수입 동향 비교

(단위: 백만 달러, %)

월	2004			2005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무역수지
1월	16,209	11.8	2,778	19,420	19.8	3,035
2월	17,469	26.1	1,668	18,371	5.2	2,032
3월	19,120	20.5	2,055	22,754	19.0	1,202
4월	18,830	27.6	2,653	21,221	12.7	1,654
5월	17,895	32.3	2,939	21,134	18.1	1,991
6월	18,544	38.1	3,113	21,256	14.6	2,462
7월	18,390	23.4	2,614	21,463	16.7	1,782
8월	18,124	33.8	1,675	21,901	20.8	1,446
9월	18,193	25.2	2,638	22,635	24.4	1,925
1~9월 계	162,775	26.3	22,133	190,156	16.8	17,529

- 품목별로는 원유, 철강관, 정밀기기의 수입이 높은 비율로 증가함.
- o 유가 및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원유의 수입물량은 전년과 거의 동일)

표 5-5. 2005년 1~9월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원유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석유제품	정밀기계	의류	정밀화학원료	천연가스	비철금속
금액	30,152	18,431	5,635	5,936	5,557	5,482	1,982	2,924	5,602	7,040
증감률	47.1	5.0	21.3	46.7	12.1	31.6	3.0	21.1	26.6	17.0

- 지역별로는 對중동, 중국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수입액을 좌우

표 5-6. 2005년 1~9월 국가·대륙·경제권별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중동	일본	중국	미국	ASEAN	EU	중남미	CIS	대양주
금액	33,154	35,833	28,255	22,779	2,503	20,352	5,092	3,336	7,898
증감률	43.9	5.0	35.7	7.8	23.7	13.2	3.1	-	28.8

다. 전망

□ 종합 전망: 원화 강세, 고유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2005년 우리나라의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11% 가량의 증가율을 보이고(약 2,790억 달러 예상), 2006년에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2005년 수입은 수출보다 높은 15~1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약 2,580억 달러 예상).

- ① 유가상승 및 원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2005년 9월까지 약 2,0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한 점, ②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등 주력 수출상품이 여전히 강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③ 중국, CIS, 중남미 등 개도국 시장 진출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2005년 수준의 수출성장세를 2006년에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고유가 장기화,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높은 환율, 그리고 2004년의 높은 수출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등으로 2005~2006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은 2004년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증가율 둔화와 지속적인 유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05~2006년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는 2004년과 비교하여 감소 예상

□ 기회 요인

- 주력 상품의 높은 국제 경쟁력: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선박,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동력 역할을 지속해나갈 것으로 전망됨.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지수)는 특정국 산업의 세계시장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며, 일반적으로 1보다 크면 국제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함. 통신기기와 반도체의 RCA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7.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의 현시비교우위지수(2003)

품목	현시비교우위지수
통신기기	3.64
섬유	2.43
반도체	2.26
컴퓨터	1.84
철강/금속 제품	1.39
가전제품	1.28
차량 및 부품	1.24

자료: KIEP

- 순조로운 시장 확대: 2005년 들어 對미국 수출이 부진한 반면, BRICs, CIS,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세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줄 것으로 보임.
- o 2005년 9월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증가율은 둔화된 반면(-3.4%), 중국(25.2%), 중남미(35.2%), ASEAN(16.4%)에 대한 수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위험 요인

- 고유가 장기화 및 원/달러 환율 강세
 - o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는 한, 고유가는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o 원/달러 강세는 수출 채산성 악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중 무역마찰 심화 가능성
 - o 2005년 9월간 미국의 對중국 무역적자는 약 201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9월간 전체 무역적자 역시 약 661억 달러에 달하여 종전 최고치를 갱신하였음.
 - o 이에 따른 미·중, 미·EU간 무역마찰의 가능성이 상존하며, 세계 무역환경의 불안정성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음.
- 소수품목 수출의존: 우리나라의 수출이 소수의 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것

은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경제에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 아울러 핵심기술 개발이 지연될 경우,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주요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이 점차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표 5-8. 2005년 9월 현재 상위 5대 수출품목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	수출액	전체 수출에서의 비중
반도체	22,437	10.8
자동차	21,102	10.2
무선통신기기	19,925	9.6
선박류	13,110	6.3
컴퓨터	10,590	5.1
계	87,164	42.0

- 양극화된 수출 성장: 자동차, 반도체 등 대기업 중심의 제품이 수출을 주도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수출은 환율 강세 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출 양극화 우려

표 5-9. 2005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수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2005년 월	중소기업		대기업		총수출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1	6,988	34.7	15,452	65.2	22,456
2	6,437	34.2	13,953	65.6	20,403
3	8,187	34.4	15,752	65.6	23,955
4	7,769	34.9	15,053	65.1	22,875
5	7,787	33.7	15,332	66.3	23,126
6	8,279	34.0	15,431	65.8	23,718
7	7,991	34.2	15,238	65.8	23,244
8	7,985	31.6	15,320	68.4	23,348
9	8,527	31.1	16,011	68.8	24,560
누계	69,952	33.7	137,540	66.2	207,685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자료: 중소기업청

2. 외국인투자 동향 및 2006년 전망

가. 동향

- 2001년부터 연속 감소추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4년 12, 786백만 달러 외자유치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2005년 9월 현재 누적액 7,687백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동기대비 8.7% 감소하였음.
 - 2005년의 외국인 투자 감소의 원인은 세계적인 FDI 감소추세, 고유가, 원화 강세 지속 등의 원인과 더불어 작년 실적호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임.
 - 중소형 투자 증가 및 투자건수 증가로 투자저변이 확대 되었으며 선진국으로부터의 R&D 투자 증가로 투자의 질이 개선됨.

표 5-10.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1-9월)
신고액	15,219	11,286	9,093	6,469	12,786	7,697
증가율	(△2.0)	(△25.8)	(△19.4)	(△19.4)	(97.7)	(△8.7)

주: 신고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 제조업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서비스업은 게임 소프트웨어, 문화관광, 음식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3분기 연속 전년동기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음.
- 형태별로는 M&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가 모두 감소하였고 이는 작년의 대형 프로젝트 유치에 따른 상대적인 영향임.
- 지역별로는 미국과 일본의 투자금액 변동은 미미한 반면 홍콩은 안면도

파크랜드 투자 등으로 투자액이 2,319% 크게 늘어남.

- 투자규모는 1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투자는 감소한 반면 1억 달러 미만 중소형 투자는 증가함.

나. 향후 전망

- 세계적으로 중장기 외국인직접투자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 특히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활발해지고 각 국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우수한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국이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미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아시아지역에서는 동유럽지역이 좋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남미도 최근 외국인투자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적인 외국인투자 증가추세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유가 상승, 원화가치의 절상,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투자 대상국의 부상 등의 우리나라 외국인투자의 위협요소와 보호무역주의,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위축, 테러, 선진국들의 금융 불안정 등 여러가지 대외적인 위협요소가 존재함.
 - 반면 6자 회담의 타결, 내수시장의 회복, 기업실적의 향상, 경기회복 등은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FTA, 2005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등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 산업별로는 제조업, 기초천연자원사업보다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전망이 더욱 좋으며 형태별로는 2005년과 2006년 M&A형 외국인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됨.

다. 대응방향

- 세계적인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인 전망에 따라 세계 각국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며 각국 투자진흥기관들의 인력확충과 새로운 제도마련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유치 종합대책 마련과 투자인센티브 확대 등의 노력을 통해 외국인투자 부분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국,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떨어지는 수준임.
 -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장벽과 낙후된 교육시스템, 노사문제 등 투자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자유구역의 비효율적 운영, 외국인투자의 수도권 편중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
- 외국인투자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차별적 투자 인센티브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중장기 FDI 비전과 주요 업종별 외자유치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최근 우리 경제는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바, FDI의 양적인 팽창 전략보다는 비교우위 전략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 유치에 있어 만성적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가 IR의 개선을 위해 외국인투자 관련 IR 활동을 강화하여야 함.
 - 특히 2005년은 우리나라에서 세계 화상대회(10월), APEC 정상회담(11월) 등 각종 국제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를 투자 IR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함.
 - 금번 부산 APEC 정상회담은 국가 이미지 제고효과 및 국가홍보와 더불어 외자유치와 국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임.

-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프라 조성 및 제도 개선에 주력하여 인천·부산·광양 경제자유구역에 다국적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생산의 집적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음.
 - 정부는 인천, 부산-진해, 광양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각종 인허가 절차의 중복 및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결정권한을 강화하여 투자유치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는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므로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 제공 외에 노사관계 유연화, 투명한 기업거래 관행의 확보 등 일반적인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외 지역에서도 투자인센티브제도, 투자환경, 투자접근성 등을 개선해야 함.

- 향후 서비스 업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서비스 업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투자 제외업종인 연구개발 사업, 사교육기관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야 함.

제6장 2006년 주요 통상환경

1.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가 분야별 논의동향

1) 개요

- 2004년 8월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에 합의가 도출된 이후 WTO/DDA 협상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나, 제6차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2004년 8월 1일 147개 WTO 회원국은 세부원칙(modality)에 대한 기본 골격/framework)을 합의하였고, WTO 일반이사회는 이에 관한 합의문(WT/L/579)을 채택하였으며, 오는 12월 13~18일 홍콩에서 제6차 WTO 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 동 합의(소위 July Package) 이후 DDA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나,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 규범 등의 분야에서 회원국의 이견이 존재해 홍콩 각료회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 지금까지의 협상동향을 평가해 볼 때,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등이 주요 분야이며, 그 외 규범(반덤핑, 보조금, 지역무역협정), 무역원활화 등도 중요한 이슈임.
 - 그러나 DDA 협상의 전체적인 성공을 좌지우지할 분야는 농업부문인 것으로 평가됨.

2) 농업

- 농업부분에서는 크게 시장접근(market access), 국내보조(domestic

supports), 수출경쟁(export competition)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에 있어 농산물 수출국 및 수입국간의 이견이 여전히 존재함.

- 2003년 칸쿤 각료회의 결렬의 표면적인 이유는 싱가포르 이슈에서의 이견으로 알려져 있지만, 농업분야, 특히 농업보조금 감축을 둘러싸고 개도국 그룹인 G-20²³⁾와 미국, EU 등 선진국이 강하게 대립한 점도 주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농업협상은 브라질 · 중국 · 인도 등의 수출개도국 그룹 G-20, 한국 · 일본 · 스위스 등의 수입국 그룹 G-10, 미국과 EU의 선진국 그룹 등 3개 그룹이 협상을 주도하는 협상구도를 보이고 있음.²⁴⁾

□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구간별 감축방식(tiered formula)에서 구간경계, 관세감축률, 관세상한, 민감품목, 특별품목, 지리적 표시(GI) 등임.

- 구간경계 및 관세감축률에 있어 EU, 미국, G20, G10, ACP 등이 모두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음.
- 관세상한의 경우 EU, 미국, G20 등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반면, G10과 ACP는 동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음.

□ 국내보조에서도 구간별 감축공식(tiered formula)이 채택되었는데, 보조 총액측정치(AMS), 무역왜곡보조총액, 미소마진, 직불제(Blue Box), 허용보조금(Green Box) 등에서 회원국간 이견이 존재함.

- 국내보조에 있어 G20 및 농산물 수출국은 선진국 주장보다 급격한 감축을 주장하고 있음.

23) 농업시장개방에 적극적인 개도국으로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중심임.

24) 그 외 특별품목(SP)그룹, 아프리카 개도국 중심의 G-90 등이 있으며, 미국과 EU 역시 세부분야별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여주고 있음.

- 수출경쟁과 관련하여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 (phasing out)하여 감축(reduction)” 한다는 기본 목표에 합의하였으나, 미국은 2010년까지 철폐를, EU는 품목별 차등 철폐를 주장하고 있음.

3) 비농산물 시장접근

-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7월 패키지’의 합의사항은 기본적으로 데르베즈 초안을 기초로 하여 협상하되, 추후 협상시 고려해야 할 요소를 추가하였음.
 - 특히,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의 협상목표가 고관세(tariff peaks)²⁵⁾ · 고율관세(high tariffs) ·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²⁶⁾ · 비관세장벽(NTBs)의 철폐 및 감축 등에 있음을 재확인하였음.
 - 이러한 협상목표 아래 주요 쟁점은 (1) 관세인하공식, (2) 부문별 관세철폐, (3) 개도국 우대조치, (4) 비관세장벽에 대한 정의 및 범위 등임.
- 관세인하공식에 대해 높은 관세가 낮은 관세보다 더 많이 감축되는 비선형 인하방식(non-linear formula)을 도입하는 데는 이견이 없으나, 구체적으로 스위스 공식 및 지라드 공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공식에서의 계수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음.
 -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스위스 공식을 선호하나, 개도국은 지라드 공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미국은 스위스 공식을 택하되, 선진국과 개도국에게 다른 계수를 부여하는 대신 두 계수의 차이가 미미하여야(within sight of each other) 한

25) 많은 품목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동시에 상당한 품목에 대해서는 무역장벽적 효과를 가져 올 정도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현상을 지칭함.

26) 가공도별로 관세율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지칭함. 즉, 원자재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대신 최종 제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무역장벽의 역할을 함.

다고 주장하였음.

- 브라질, 인도, 아르헨티나 등은 지라드 공식을 사용하되, 선진국과 개도국간 다른 계수의 부여를 주장한 바 있음.

□ 관세 철폐의 대상을 분야별로 접근하는 부문별 무세화의 경우 여러 종류의 산업에 대한 제안이 제시되었으나, 개도국은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미국은 농업장비, 건설장비, 가구, 의료장비, 종이 등에 대한 무세화를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선진국의 제안에 대해 인도 및 중국 등 개도국은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분야별 무세화를 추진하자는 입장임.

4) 서비스

□ 농업협상과 함께 기설정되었던 서비스협상은 “양자협상방식(request/ offer approach)”을 주된 협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양허안 및 수정양허안 제출실적이 부진하고 그 수준 역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개도국은 인력이동(mode 4) 등에 관심이 높아 지난 ‘7월 패키지’에서는 개도국 관심분야에 대한 양허를 확대하고 개도국 기술지원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큰 진전은 없는 실정임.

5) 규범

□ 반덤핑, 보조금(수산보조금 포함), 지역무역협정(RTAs) 등이 논의되는 규범협상은 상기 협상분야 못지않게 중요한 분야이나, 반덤핑 분야에서 미국의 반발이 강하기 때문에 DDA협상이 마지막에 논의될 가능성이 높음.

- 반덤핑 및 보조금협정에 대해 규범 개선 및 명료화를 통해 무역구제조치의 남용을 막자는 반덤핑 프렌즈 그룹의 주장에 대해, 기존의 동 협정에 대한 기본 원칙, 원리, 효율성 등을 보존하지는 것이 미국의 주장임.
- 수산보조금의 경우 무역왜곡 및 자원고갈의 원인에 대한 논쟁 외에도 수산보조금의 무역왜곡적 기능 여부, 수산업의 이질성과 일반적인 접근방법 등이 수산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임.
- 지역무역협정은 DDA협상에서 진전이 부진한 분야 중 하나였으나, 지역무역협정 관련 규정 중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음.
 - 주요 논의내용은 통보시기, 통보절차, 통보내용 등 규정상 애매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하게 개정하는 것임.
 - 칸쿤 각료회의에서는 투명성과 관련된 부분에 규범상의 의사결정 (provisional decision)을 내릴 것을 규범협상그룹에 지시하였음.

6) 무역원활화

- 무역원활화의 협상목표는 상품이동을 촉진하기 위해 GATT 5조(통과의 자유), 8조(수입과 수출에 관련된 수수료 및 절차) 및 10조(무역규정의 공포 및 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 개선하는 것임.
 - 각 분야별로 이슈는 선정되었으나 어떠한 방향으로 협상할지에 대해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간 합의가 없는 실정임.

나. 향후 전망

1) 홍콩 각료회의에 대한 전망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년 8월 “세부원칙에 대한 기본골격”이 합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비농산물 시장접근, 서비스, 규범 등 주요

이슈에 대해 회원국간 이견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홍콩 각료회의의 성공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현재로서는 홍콩 각료회의가 칸쿤 각료회의에 이어 결렬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농업분야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타결될 가능성도 미약하나마 존재함.
 - 다만,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무역자유화’ 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수준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2) 홍콩 각료회의 이후

- 홍콩 각료회의가 성공적으로 타결될 경우 합의된 세부원칙을 바탕으로 협상이 급진전하여 2006년말 까지 협상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다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수준이 낮을 경우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평가되며 WTO 중심의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비효율성을 중심으로)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홍콩 각료회의가 칸쿤 각료회의와 같이 결렬될 경우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지속될 것이며 DDA협상 전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표 6-1. 지금까지의 논의단계와 향후 전망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간	2001.11~ 2003.9	2003.10~ 2004.7	2004.8~ 2005.12	2006.1 이후	
협상 내용	분야별 입장표명	세부원칙 기본골격	분야별 세부원칙 및 주요 이슈	홍콩: 성공	협상 마무리
				홍콩: 결렬	분야별 세부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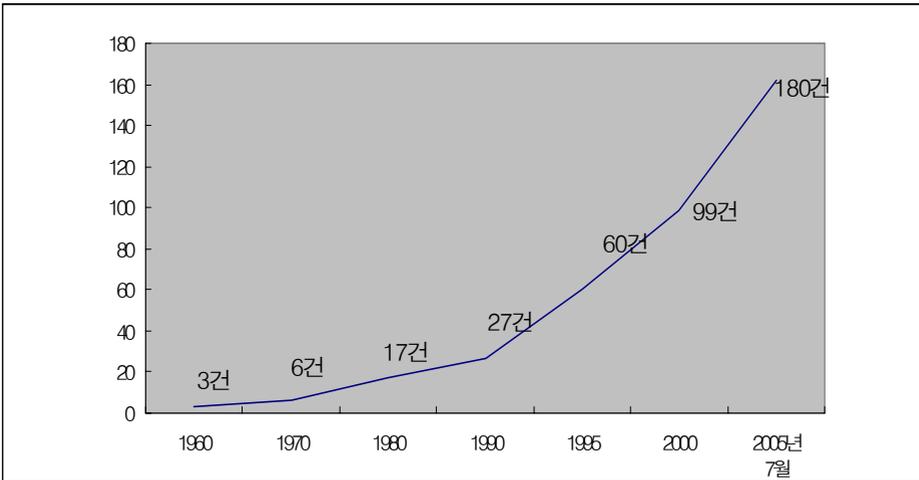
주: 상기 단계는 분야별로 다를 수 있음.

2.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가. 2005년 자유무역협정 추진 현황

- 2005년도에는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및 중국 등 주요국들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들이 경쟁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추진함.
 -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RTA)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총 18건의 FTA가 2005년 중에 추가됨.
 - 또한 WTO에 미통보된 FTA 가운데 2005년 중에 새로 발효되거나, 협상이 개시된 FTA도 상당수 존재함.

그림 6-1. 세계 FTA의 체결 현황 (발효중인 RTA 기준)



자료: WTO.

- 2005년 주요 국별 FTA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미주 대륙에서의 리더십 유지를 위해 FTAA에 중점을 두는 한편, 전략상의 중요성 및 지역적 다양성의 차원에서 SACU, 태국, Andean 공

동체 등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UAE 및 오만과도 2005년 3월 각각 FTA 협상을 개시, 오만과의 FTA는 2005년 10월 타결함.

- 캐나다는 FTAA, EFTA, 싱가포르 및 중남미 4국(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 한국과 FTA 협상을 개시함.
- EU는 지난 2004년 5월 중·동유럽 등 10개국을 추가적으로 영입하여 총 25개 회원국으로 확대된 데 이어 2005년 현재 MERCOSUR 및 GCC 국가들과 FTA 협상을 진행함.
- EFTA는 2000년대 들어서 유럽대륙을 넘어서 주요 교역국인 멕시코, 싱가포르,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7월에는 한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함. 또한 2005년 2월 GCC 국가들과 FTA 협상을 개시하였으며, ASEAN 및 MERCOSUR 등 주요 경제권과의 FTA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
- 중국은 2005년 7월 ASEAN과의 FTA(상품분야)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중에 GCC, 호주, 칠레, 파키스탄과 FTA 협상을 각각 개시하는 등 동아시아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 국가들에게까지 FTA 대상국을 확장시키고 있음. 칠레와의 FTA는 2005년 10월 타결함.
- 일본은 2004년 12월 수립한 'FTA 추진 기본 방침'에 토대를 두고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는바, 2005년 4월 멕시코와의 FTA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중에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각각 FTA 협상을 타결함. 또한 2005년 4월 ASEAN과, 7월에는 인도네시아와 FTA 협상을 각각 개시하였으며, 칠레, 인도, 호주 및 남아공 등과의 FTA도 검토 중에 있음.
- ASEAN은 아시아의 FTA 허브로 부상하기 위해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2005년 7월 중국과의 FTA(상품분야)를 발효시켰으며, 2005년 2월에는 한국 및 호주·뉴질랜드와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하였고, 4월에는 일본과 FTA 협상을 개시함. 또한 인도와의 FTA는 당초 2006년 1월부터 발효기로 하였으나, 원산지 규정 등에서의 이견으로 인해 2007년 1월로 발효시점을 연기함.
- 한국은 지난 2003년 9월 수립한 『FTA 로드맵』을 토대로 2005년부터

EFTA, 캐나다, ASEAN, 일본 등 20여개국과 동시에 FTA 협상 또는 협상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5년 7월에는 EFTA와의 협상을 타결시킴. 또한 멕시코와는 2005년 8월 공동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인도 및 MERCOSUR와도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 이상에서와 같이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국가들의 FTA 추진동향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찾을 수 있음.
- 우선, 과거에 WTO등 다자무역체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FTA 등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소홀히 해왔던 국가들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 즉, 기존에 지역주의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아 왔던 한국 및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호주 및 뉴질랜드 등 오세아니아 국가들도 활발한 FTA 체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자국의 통상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지역무역협정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 또한 미국-칠레 FTA, EU-칠레 FTA, EU-멕시코 FTA 및 호주-중국 FTA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선진국과 개도국간 상호 특혜무역협정의 체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이는 이전에 비해 선진국들의 일방적인 특혜 관세 제도에 대한 개도국들의 의존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6-2. 2005년 주요국별 FTA 추진 현황

	기체결 FTA	협상중 FTA	검토중 FTA
미국	이스라엘(85), NAFTA(92), 요르단(00), 칠레(03), 싱가포르(03), CAFTA(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04), 호주(04.2 타결), 모로코(04.3타결), 바레인(04.5타결), 오만(05.10타결)	FTAA(98.4개시), SACU(03.6개시), 태국(04.6개시), 파나마(04.4개시), Andean공동체(04.6개시), UAE(05.3개시),	ASEAN, 인도네시아, 이집트, 대만, 우루과이, 필리핀, 한국

표 6-2 계속

	기체결 FTA	협상중 FTA	검토중 FTA
캐나다	NAFTA(94 발효), 칠레(97), 이스라엘(97), 코스타리카(01)	FTAA, EFTA(98.10개시), 싱가포르(01.10개시), 중남미 4국, 국(05.7개시)	안데스공동체, 일본, EU, 도미니카공화국
EU	EFTA(94), 알제리(02), 요르단(02 발효), 멕시코(00 발효), 모로코(00 발효), 터키(95 발효), 칠레(03 발효)	MERCOSUR(95 개시), GCC(90 개시)	ASEAN, 대만, 싱가포르, Andean 공동체
EFTA	EU, 터키(91), 이스라엘(92), 폴란드(92), 루마니아(92), 헝가리(93), 불가리아(93), 체코(93), 슬로바키아(93), 슬로베니아(95), 리투아니아(95), 모로코(97), 멕시코(00), 요르단(01), 싱가포르(02), 칠레(03), 한국(05.7타결), 튀니지(04.12)	GCC(05.2개시), 이집트·레바논(03.4개시), 캐나다, 남아공, 알바니아, SACU(03.5개시)	ASEAN, MERCOSUR, 알제리, 태국
중국	홍콩(03.6), 마카오(03.10), ASEAN(04.11 상품분야 타결, 05.7 발효), 칠레(05.10타결)	뉴질랜드(04.12 개시), GCC(05.4 개시), 호주(05.5 개시), 파키스탄(05.1개시)	남아프리카(공), 인도, 한국, 일본, MERCOSUR
일본	싱가포르(02.1), 멕시코(04.3타결, 05.4발효), 필리핀(04.11 타결), 말레이시아(04.1 개시, 05.5타결), 태국(05.8 타결)	한국(03.12 개시), ASEAN(05.4 개시), 인도네시아(05.7 개시)	칠레, 인도, 호주, 남아프리카(공)
ASEAN	AFTA(92.1), 중국(04.11 상품분야 타결, 05.7 발효), 인도(07.1 발효 예정)	한국(05.2개시), 일본(05.4개시), 호주·뉴질랜드·ASEAN(05.2개시)	EU
한국	칠레(04.4 발효), 싱가포르(05.8 서명), EFTA(05.7 타결)	일본(03.12개시), ASEAN(05.2개시), 캐나다(05.7개시)	멕시코, 인도, MERCOSUR, 미국, 중국, 한·중·일

나. 2006년 자유무역협정 추진 전망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세계 각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간 협상이 진행중이거나 공동연구 혹은 정부간

검토단계에 있는 FTA가 상당수 존재하며, 따라서 2006년 중에도 협상중인 FTA가 추가로 타결되거나, 검토단계에 있는 FTA에 대한 협상이 새로이 개시될 가능성이 많음.

- 또한 FTA가 추가로 발효되어 지역주의가 확산될 경우 이에 따르는 경제적 고립 및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주의에 뒤쳐진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FTA 체결을 추진할 것이며 결국 그에 따르는 세계 경제의 개방화는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각국의 FTA 추진 실적에서의 차이는 FTA 참여국과 비참여국 간에 경제개방의 정도 및 속도에서의 차이를 상당부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됨. 아울러 FTA의 경우 참여국의 수가 적기 때문에 WTO에 비해 협상 타결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협상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상대적으로 개방의 폭과 깊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참여국과 비참여국간의 경제개방 정도 및 속도에서의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적인 목적, 안보상의 목적 및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FTA 체결 목적의 다양성을 감안할 경우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될 WTO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되더라도 당분간 FTA 체결 열풍은 크게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러한 다양한 목적 등을 감안할 경우 기존에서와 같이 인접한 자연적 교역대상국들(natural trading partners)과의 FTA뿐만 아니라, 일·멕시코 FTA, 호주·중국 FTA 등과 같이 지역간(cross-regional) FTA의 체결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FTAA 등 대륙 전체에 걸친 지역무역블록의 형성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고유가 시대를 맞아 산유국인 중동 국가들과의 FTA 등 에너지 및 자원 위기에 대비한 자원 확보형 FTA 체결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3. ASEAN+3 동향 및 전망

가. ASEAN+3 경제적 비중과 위상

- 그동안 역동적 성장패턴을 보여온 동아시아 지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압축적인 성장을 달성하면서 경제규모면에서 NAFTA, EU에 이어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음.
 - 1990년대 중반까지 역내의 급속한 공업화를 기반으로 동아시아의 순차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역내분업구조에 의한 상호의존관계가 심화·발전됨에 따라 교역 및 투자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 ASEAN 10개국과 한국, 일본, 중국으로 구성된 ASEAN+3 경제권의 경제규모는 2004년 현재 약 7.8조 달러로서 전세계 GDP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교역규모는 3.6조 달러를 기록하여 전세계 총교역의 19.5%를 차지하고 있음.

표 6-3. 주요 경제권역별 GDP 규모와 교역비중(2004)

	GDP		교역	
	십억달러	%	십억달러	비중(%)
ASEAN	796.8	1.94	1,025.0	5.63
한·중·일	7,006.2	17.05	2,517.6	13.83
ASEAN+3	7,802.9	18.99	3,542.7	19.46
인도·CER	1,412.3	3.44	378.5	2.08
ASEAN+6	9,215.3	22.43	3,921.1	21.54
NAFTA	13,402.5	32.62	3,183.4	17.48
EU	12,845.4	31.26	7,329.2	40.25
세 계	41,086.3	100.00	18,207.0	100.00

자료: GlobalInsight. 2005.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Quarterly.

- 2004년 현재 ASEAN+3의 역내무역비율은 38%로 NAFTA와 EU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 ASEAN+3의 역내무역비율은 매우 강한 상승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이러한 역내무역증가의 배경에는 우선 중국의 고도성장에 의한 거대시장의 출현을 들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입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임.
 - 또한, 역내에서의 소득수준의 평준화와 제품의 고도화 등에 대응한 제품의 차별화와 분업의 세분화로 인해 ASEAN+3 역내에서 산업내 무역이 증가했기 때문임.

표 6-4. ASEAN+3 및 주요 지역경제통합체의 역내 무역의존도 비교

연 도	ASEAN+3	EU25	NAFTA	MERCOSUR
1980	31%	56%	34%	11%
1990	30%	60%	38%	11%
1995	38%	61%	43%	19%
1999	36%	62%	48%	20%
2004	38%	69%	45%	15%

주: 위의 비율은 각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총액을 수출입평균액(무역총량의 1/2)으로 나눈 것임.
원 데이터는 수출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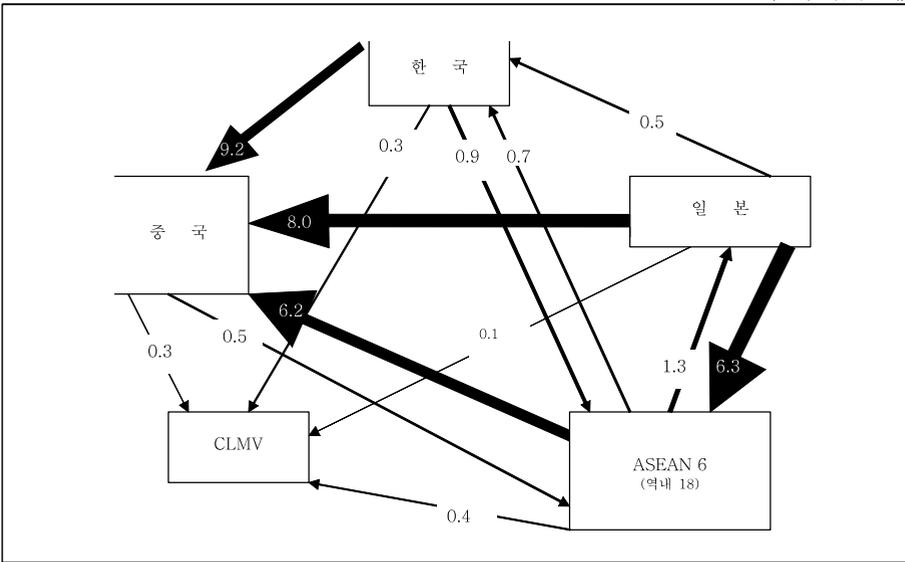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각년호 데이터를 이용하여 작성

- 역내에서의 무역 및 투자현황을 보면, 무역과 투자 모두 동북아와 ASEAN회원 국가들 간의 역내거래가 대체로 활발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
 - 일본은 역내에 견고한 흑자구조를 구축하고 있고, ASEAN 국가들과 과 동북아 국가들의 사이의 보완성이 양호함.
- 역내투자를 보면, 동북아시아 내부에서의 투자액이 두드러지고, 중국에 대한 투자의 흐름이 압도적임.

- ASEAN+3 역내에서의 투자의 흐름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대규모 투자가 특징적인데, 원가절감형 투자에서 시장확보를 위한 투자까지 매우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음.
- 일본에서 ASEAN 6, ASEAN 6에서 중국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중국이 역내투자의 흐름을 흡수하고 있는 형태임.

그림 6-2. ASEAN+3 역내 투자의 주요 흐름(2003)

(단위: 십억달러)



자료: 권윤희,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과 한국의 대응전략』, KIEP 정책연구보고서, 2005.

나. ASEAN+3 협력체제의 최근 동향

-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 성장기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관계는 보다 활성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한 제도적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활성화된 ASEAN+3

(한·중·일) 협력체제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적인 역내 협의체로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임.

- 당초 ASEAN+3 정상회의는 느슨한 협의체로서 출발하였지만, 현재 역내 주요 이슈를 협의하면서 경제정책 공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ASEAN+3 협력체제의 발전과 함께 동아시아 공동체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있음.

- 1999년 필리핀 회의에서 ‘ASEAN+3의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 성명’이 채택되고, ASEAN+3 정상회담이 정례화 된 이후 ASEAN+3 협력체제는 동아시아에 있어서 제도적 통합에 대한 논의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그동안 ASEAN의 경제통합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에서는 중·ASEAN FTA와 일·ASEAN FTA가 추진되고 있고 역내 개별국간의 FTA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중국과 ASEAN의 FTA 추진을 계기로 역내 국가들의 경쟁적인 FTA 추진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 다툼으로 확대되면서 ASEAN+3 협력체제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²⁷⁾

□ 그럼에도 불구하고, ASEAN+1 차원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확대되면서 역내 지역주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ASEAN을 허브(hub)로 하여 ASEAN+1 차원의 중층적인 FTA추진이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출범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임.

-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이 ASEAN+3 경제장관회담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 타당성조사를 위한 전문가 회의’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

27) Hadi(2003), “An ASEAN Economic Community and ASEAN+3: How Do They Fit Together,” *Pacific Economic Papers* No. 338, Australia-Japan Research Centre, p. 6 참조.

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에도 2003년도 ASEAN+1 정상회의를 통해 한·ASEAN FTA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ASEAN측과 합의한 이래 2004년 공동연구를 마치고, 2005년 10월까지 한·ASEAN FTA 협상이 일곱 차례 추진된 바 있음.

□ 2005년 12월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동 회의에는 호주, 뉴질랜드 및 인도가 초청되면서 향후 동아시아 공동체 실현을 위한 로드맵에 대하여 많은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어 인도와 호주, 뉴질랜드가 포함될 경우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44%가 증가하여 ASEAN+6의 GDP 비중은 22.4%로 증가하고, 교역규모도 21.5%로 확대됨(표 1 참조).

다. 향후 전망

□ ASEAN+3에서의 역내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통합과 관련하여 평가해 볼 때, 앞으로 ASEAN+3 역내국가가 향후 일정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하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고도성장이 지속되면서 역내 각국은 무역상대국과 투자대상지로서 연관성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고,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합은 보다 가시화 될 것임.
- 세계은행²⁸⁾에 의하면, 동아시아·대양주 지역의 2006~15년의 성장률은 6.1%에 달하고, 중국을 제외한 경우에도 동 기간의 성장률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역내 경제관계의 상호의존과 협력관계는 보다 발전될 것임.

28)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05: Trade, Regionalism and Development 2005.

- 특히 ASEAN+3 협력체제가 확대되고 인도와 호주는 ASEAN과 각각 FTA 추진을 합의한 실정이어서 향후 ASEAN이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매개로 경제협약체의 외연이 크게 확대되고, 역내 경제교류는 보다 다각화될 전망이다.
-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지역주의에 대한 관점도 보다 동아시아지역의 상호의존성과 분업관계에 주목하여 새로운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역내 경제권과의 FTA 추진 및 동아시아 FTA 추진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특히 동아시아공동체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역내 경제통합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서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추진타당성 연구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4. 동북아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가. 환경변화

- 지난 10여 년간 동북아의 주요지역인 한·중·일 3국간 교역 및 투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역내 경제의존도가 증대되고 있음.
 - 1994~2004년 동안에 한·중·일 3국간 역내교역이 3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5%에서 24%로 크게 증가하였음.
 - 역내 직접투자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의 급증으로 1993~2003년간 한국과 일본의 대중 투자는 각각 2억6천만 달러 및 17억 달러에서 45억 달러 및 51억 달러로 급신장하였음.
- 지난 3~4년간 한국 정부는 ‘동북아 에너지협력체’ 를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온 결과 동북아차원에서 에너지 개발과 관련된 협력 사업이 논의되고는 있으나 가시화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임.
 - 남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 6개국의 고위 관료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동북아에 대한 일본과 중국 정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음.

- 북한 핵문제 관련 6자 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되고 있음.
 - 동북아 경제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한 주요 선결과제 중의 하나로 한반도의 평화조성을 언급할 수 있는데, 6자회담의 재개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기틀이 마련됨으로써 역내국가들간 에너지협력, 철도연결사업, 환경협력 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짐.
- 반면 일본 고이즈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으로 인한 한·일 및 중·일간 정치적 관계의 악화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도화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한·일 FTA가 2005년 중 타결을 목표로 2003년 12월부터 정부간 협상이 진행되어 왔으나 현재 협상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음.
- 결국 현재 동북아는 무역·투자 등의 상호의존도가 증대됨에 따라 기능적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제도적 경제통합의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나. 향후 전망

- 향후에도 동북아 역내국가들간의 경제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
 - 한·중·일 3국간의 역내교역에 대한 의존도는 각국의 대외교역에서 상대국이 위치하는 교역순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 현재 한·중·일 3국의 교역대상국 중 역내 국가들이 모두 4위내에 위치하고 있음.

- 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에서는 제2위의 교역대상국이 되었음.
- o 1994~2004년 동안 일본의 미국 및 중국과의 교역증가율이 각각 0.6%와 13.8%를 기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2004년 현재 1,68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내 미국(1,924억 달러)을 제치고 일본의 제1위 교역대상국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에너지 개발관련 협력사업이 진전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는 동북아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이지만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 북한과 미국 및 일본과의 관계 등의 제약들로 인하여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한국, 중국 및 일본은 현재 ASEAN과의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면 동북아 주요 3국인 한·중·일 3국간 FTA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연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FTA와 같은 제도화는 ASEAN+3를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논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다.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및 대응방향

□ 우리나라는 동북아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ASEAN FTA의 정식 발효에 따라 향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여건이 ASEAN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정부차원에서의 한·중 FTA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 2005년부터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 발전연구중심(DRC)간에 민간공동연구가 진행 중에 있음.

□ 한·일 FTA는 당초 계획대로 2005년 내에 정부간 협상을 마무리하기 어

려울 것이 예상되나 한·일간 정치적 관계개선, 문화교류의 확대 및 한·중간 FTA 일정 등에 따라 협상 속도가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음.

- 한·일 FTA가 진전될 경우, 이는 동북아 및 동아시아 FTA 실현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 동북아 및 동아시아 제도적 경제통합의 원년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임.

□ 현재로서는 동북아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을 단기적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역내 에너지, 철도, 환경 등의 협력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협의기구로서 『동북아경제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동북아의 과거사로 미루어 볼 때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동북아지역에서 주도권을 추구하려 한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없으므로 우리나라가 동 협의체를 제안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ecutive Summary

The Outlook for 2006 World Economy

Junkyu Lee ed.

The world economy is evaluated to be very flexible when dealing with high-priced oil, natural disasters, and external shocks. A goal for the second and third quarters of 2006 is to have a continuous growth momentum greater than a long term trend line. Also, in the second half of 2006, the negative effects of consumption, investment, and real GDP growth are expected to increase because of the rise in worldwide interest rates.

Major issues that will affect the direction of the U.S. economy in 2006: an increase in inflation pressures due to high-priced oil, a rise in the interest rate, increasing signs of the collapse of the housing bubble, and the continuance of a twin deficit. The U.S. economy is expected to have an economic growth rate of over the average of 3.3% in 2006, thus remaining a growth engine of the global economy.

Major issues for the Chinese economy: an increase of the current account surplus, the continued possibility of a growth rate that depends on exports and imports, and a revaluation of the RMB. Due to basic government policy aimed at maintaining high economic growth, China is estimated to have attained a high growth rate of 9.3% in 2005, and is expected to reach more than 8.0% in 2006.

Important factors that affect the Japanese economy: rising oil prices and insecurity regarding foreign economies such as those of the U.S. and China. However, with a domestic-oriented growth rate, Japan is estimated to have attained 2% financial growth in 2005, and is expected to attain 1 to 2% in 2006.

Major issues for the EU: the effects of high-priced oil, the possibility of an increase in interest rates, the pressure of retrenched finance, uncertainties regarding the reform policies of major econom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the issue of immigrants, and the difficulties of integration because of the rejection of the EU constitution. The EU economy is estimated

to have achieved a 1.4 to 1.5% growth in 2005 which is smaller than in 2004, but is expected to achieve a 1.9 to 2.0% growth rate in 2006.

Due to the increase in interest rates, the value of the U.S. dollar continues to be strong, but may turn weak in the first quarter of 2006,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fixing the federal funds rate. This policy rate increase will negatively influence adjustment in the United States' housing sector, which is likely to lead to lower world economic growth.

Oil prices, with its tight supply-and-demand structure and its lack of refinery equipment, are expected to remain high through 2006. Oil prices will be decided by five variables, and those are the 2006 U.S. economy, China's introduction of a fuel tax, the nuclear issue of Iran, the insecurity of the Iraq situation, the continuation of damage from hurricane Katrina.

Lately, FTAs are also being used for various objectives such as politico-security reasons and the need to secure markets. The number of successfully concluded FTAs is expected to keep rising through 2006.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강문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장

권기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권 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김권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 전문연구원

김균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김은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팀

김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원

나수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부연구위원

박혜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연구원

방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협력센터 연구원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부연구위원

이호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부연구위원

이홍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무역투자정책실 FTA팀장

정재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최윤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 전문연구원

정책자료 05-08

2006년 세계경제 및 통상환경 전망

2005년 12월 20일 인쇄

200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89-322-2094-8 94320

89-322-2068-9(세트)

정가 7,000원

The Outlook for 2006 World Economy

Junkyu Lee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화는 금리 인상 지속으로 2005년 말까지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유가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고유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의 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당분간 FTA 체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ISBN 89-322-2094-8
89-322-2068-9(세트)

정가 7,000원